건축사 521

EKIRA 2012 09 1 9 6 6 년 창 간

-칼 럼 건축시장의 일그러진 모습

에세이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농어촌 지역활성화 라 스칼라(La Scala)와 오선지

HOREAN ARCHITECTS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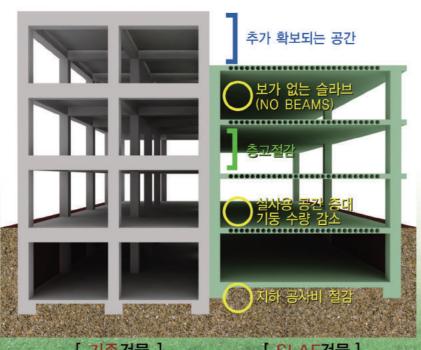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P조기술사사무소/벤쳐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TEL (02)3481-3885(代) FAX (02)3476-3888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 (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 (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 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TEL : 02)333-4448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TEL : 054)973-1900

■ FAX: 054)973-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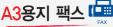


brother.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Testan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Bearing	LC73C	LC73M	LC73Y	LC73BK
WV.	600매	600매	600□ዘ	600H
- B	LC77XL계열			
三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011	1200EH	120001	SAUUUII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00 safedoor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mark>난방</mark>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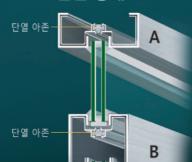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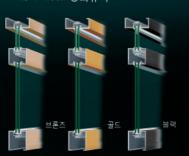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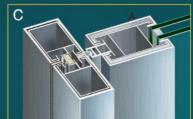
재질/한국산업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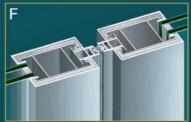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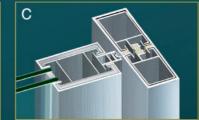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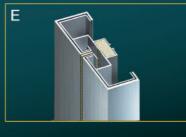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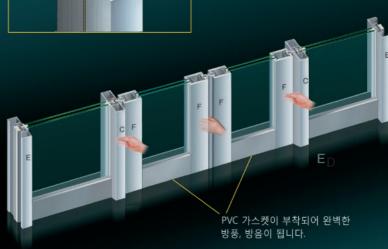












단열 아존

▶ 가격표: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053)325-9800/325-98

E-mail:jungwoo9800@hanmail.net

전국 영업망 구축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출입구매트.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Luxury Entrance Matting System

시공실적

국립생태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국회의원회관, 월드건설 사옥, 파주 롯데프리미엄이울렛, 63빌딩, 현대기아마북연구소, 한진중공업 필리핀메인오피스,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옥, 김포롯데몰, 제주보광휘닉스아일랜드,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판교LIG넥스원R&D센터, 송도 포스코건설사옥, 삼성전자기흥연구동,

신도림대성디큐브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랜드사옥,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의료원, 전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천안단국대치대병원, 아시아나 기내식센터, 전국 초·중·고교 시설환경개선공사, 두산위브더제니스, 제주대학교, 휘닉스스프링스CC, 휘슬링락CC, 프리마호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하이프라자, LG패션, 금강제화, 제일모직, 나이키 전국매장. 유니클로, 아디다스, KT지사등







국회의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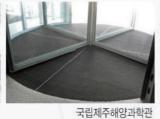
삼성그린투모루우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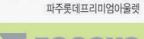
현대백화점 신촌점







현대기아마북연구소 송도포스코 R&D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02-786-7115 / Fax: 02-784-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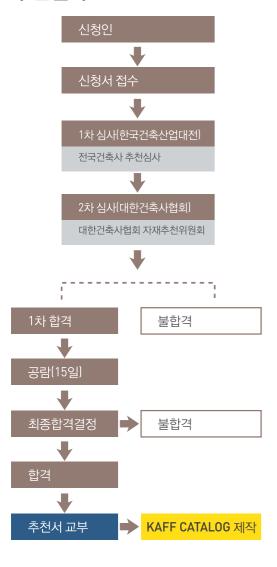
건축전문가들에게 우수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의 효율증대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관련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재추천제'를 시행합니다.

대 상 KS등 국내·외 관련법령에 의해 인증된 건축자재 중 추천신청 제품

절 차 ┃ 1차심사: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전국건축사 참여 심사

2차심사: 건축자재추천 위원회 심사 공람^{15일} 후 건축자재추천서 교부

추천절차



2012년도 건축자재 추천현황

분류	업체명	품목명	홈페이지
공공시설재	원기업	친환경 혼합석재 디자인폴	www.designpole.co.kr
구조재	경민산업	구조용 집성재	www.kmbeam.co.kr
	메타노이아	New T-BAR 경량천정 철골 구조	www.metanoia.co.kr
	성화시스템챤넬	시스템 챤넬	http://shsc.kr
	이조흙건축	숯단열벽체	www.izo.kr
	이지석재트러스	트러스 RS공법 고강도 화스너	www.egtruss.com
	피에스테크	PS-II(띠장) 및 Hi-strut(사각강관버팀보)	www.ps-tech.co.kr
급수위생설비재	도원드레인	하수악취 및 역류방지 장치	www.dowondrain.com
	세비앙	올인 바스	www.cebien.com
내외장재	삼한씨원	점토(황토)벽돌 점토(황토)바닥벽돌	www.ebrick.co.kr
	신일철구조	투톤패널	www.shinilpanel.com
	신정에스앤더블유	러스틱 플로링/ 러스틱 데크	www.isinjung.com
	씨엔에스	라임계 무기질 칼라 마감재	www.magic-coat.co.kr
	우성세라믹스공업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www.wsbrick.co.kr
	제이엠디글로벌	거푸집형 단열블럭	www.isorast-korea.con
	주신기업	EL-Zinc/ ARTE-Zinc/ KAL-Zinc	www.roof114.co.kr
	케미우스코리아	울트라화이바500/ 생도석플러스	www.chemius.co.kr
	하나인더스	아미드 인슈 메탈 패널/ 아이슬림 월 시스템 패널	www.hanaindus.com
단열재	오씨아이	ENERVAC	www.oci.co.kr
	일신산업	로이(Low-E)단열재 포그니	www.Low-E.co.kr
	세이크	슈퍼패널-경질폴리우레탄 폼단열재	www.sake.co.kr
	한국바스프	세너지 외단열 시스템	www.basf.co.kr
방수재	명진케미칼	명진수퍼 복합방수시트	www.mjc_bester.com
전시설비재	조양전기	P.V.C 케이블트레이	www.조양전기.kr
창호재	고도기연	ROTARY TYPE DOOR CLOSER	www.inoutcloser.com
	중앙시스템	레인도우	www.raindow.co.kr



건축문화와 건축산업이 결합된 종합전시회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2012. 10. 23°- 26⁻³ | Coex, Hall A & C

문 의 카프사무국 Tel 02-3415-6866-7 Fax 02-3415-6850

www.kaff.biz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September

COVER STORY



표지사진: 대양 역사관 이인호 건축사(주. 건축사사무소 이래건축) 작품 中

발행인강성익편집인 겸 편집국장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다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현진크리에이티브 02_2276_6341~3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Kang, Sung IkEditor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I-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3 칼럼 COLUMN

건축시장의 일그러진 모습 The Dark side of the Architectural Market -백민석

014 에세이 ESSAY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농어촌 지역활성화 한마음으로 결집된 경상북도 건축인

Vitalizing in rural area by developing architectural culture াঞ্জ

015 에세이 ESSAY

라 스칼라(La Scala)와 오선지 La Scala and manuscript paper _이용렬

017 만평 CARTOON

_김낙중

018 회원작품 WORKS

연세대학교 스포츠 센터 YONSEI SPORTS CENTER, YONSEI UNIVERSITY _신춘규_KIRA I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CONTEMPORARY HISTORY _김진구_KIRA I (주)정립 종합건축사사무소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 YEOSU CULTURE & ART PARK GS CALTEX YEULMARU - 김병헌_KIRA I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Contents 52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발 행 2012년 09월호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안산 생활관 CANON KOREA BUSINESS SOLUTION DORMITORY 유영재 KIRA I 신한남 건축사사무소

대양 역사관

DAEYANG GALLERY _이인호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이래건축

백양로교회 리노베이션

BAEKYANGRO PRESBYTERIAN CHURCH RENOVATION _강대화_KIRA | 건축사사무소 토탈

066 설계경기 COMPETITION

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NOWAN WELFARE CENTER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충주 남부 노인복지관 CHUNGJU NAMBU WELFARE CENTER

하빈면민 복지회관 HIBINMYEONMIN WELFARE CENTER

081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corrective order of an illegal building when the legal owner is different from the real owner?

083 연재 SERIAL

우리의 건축사를 위하여! 근대건축사를 연재하며 Introduction to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_{_안창모}

087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한동수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복합기능 고효율 단열재 전문기업

단열재는 역시

두깨는 얇고 열효율 높은 친환경 단열재!

우수한 성능 입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기술 및 기능성 연구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우수한 복합 기능!

표면이 Pure Aluminium foil 층으로 내구성, 내열성, 내진성, 방음성이 강하고 복사열을 차단(97%)하는 복합 기능 열반사 단열재!

에너지 절감 효과!

우수한 내습성, 방수성, 내열성, 내한성으로 보온 달열효과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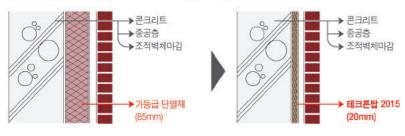
친환경 소재!

산화 및 풍화현상이 없으며 고인장강도로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

간편한 시공!

건축물 시공시 굴곡진 모서리 부분이나 틈새부분도 빈틈없이 타카 시공 및 스티커식 시공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재물이 없음!

테크론탑 2015 적용 65mm감소!







테크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379번지 대표전화 031)671-7071~3 팩스, 031)671-7074 www.itechlon.com





건축시장의 일그러진 모습

The Dark side of the Architectural Market

백민석 |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대표이사

1980년 이후 수년 동안은 시장에 관한 신념과 규제완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시장지상주의' 시대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시장이 도덕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시장과 도덕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시장과 도덕의 분리의 원인을 '시장경제를 가진' 시대에서 '시장사회를 이룬' 시대로 휩쓸리게 된 것에서 찾았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소중하고 효과적인 도구지만 '시장사회(market society)'는 시장가치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간 일종의 생활방식으로 시장사회에서는 시장의 이미지에 따라 사회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현재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공무원이 재능기부하는 형태의 무료설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 같은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 시행 이유로 대부분 시민들이 건축 설계에 대한 일반지식이 부족해 무조건 건축사를 통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 이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편을 겪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시장의 이미지에 따른 사회관계, 즉 시장사회 관점에서 바라보자.

우선, 건축사의 업무를 시민들의 '불편'으로 인식하고 업무대가를 불편부당한 비용지출로 보는 지자체의 시각을 드러낸다. 건축사를 악덕업자처럼 보는 것이다. 거래의 기본인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를 인정하지 않음과 정상적인 개인적 업무대가를 시민의 세금으로 대신 지불하겠다는 행태는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전담 공무원을 따로 배치하여 공무시간에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 또한모순이다. 그들의 시간은 시민들의 세금이므로 공적인 자산, 시간 등을 '재능기부'로 보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특정 소수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역시 문제다. 특히 건축신고라는 건축행위 주체인 건축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도와드려야 할 사회취약계층은 더더욱아니다. 규모의 문제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설계 대가를 지불할 비용이 없어 건축해위를 못하는 건축주는 없다. 고비용의 공사비는 지불하고 저비용의 설계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것은 건축주들의 왜곡된 건축시장 이미지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건축 감리에서도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의 시공비용보다는 무형의 서비스인 감리비용을 아까워 하는 건축주들이 많다. 특히 사용승인 후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주들은 경우 노골적으로 차후의 일감을 담보로 건축사의 정당한 감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

설계는 무료로 받아도 좋다는 예가 지자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당한 대가지불은 고사하고 감리의 역할을 무시하는 건축주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 제도권의 역할이 필요하다.

작년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43명이 2,296개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료 감리를 수행, 20억 6,000만원의 감리비용을 재능기부하였다. 건축시장의 올바른 이미지에 따라 사회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건축사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 국가와 지자체들의 화답을 갈망한다. 圖

필자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취득, 박사를 수료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와 건축문화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와 대한건축사협회 BM TF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bigcirc

한국농어촌건축대전

Vitalizing in rural area by developing architectural culture

이혜정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 계장

전국이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어가는 동안 농어촌마을, 농어촌 건축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농어촌은 소득감소와 젊은 층 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촌의 기능변화와 난개발로 인해 농어촌 고유의 문화적 특성은 사라지고, 수천 년 내려오던 농어촌의 정체성은 없어져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하여 농어촌이 가진 유형·무형의 가치를 발굴하고, 오랜 삶터로서의 전통과 지역성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농어촌지역의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의 제시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어촌마을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농어촌을 정의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건축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정책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전문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의 역할은 큰 중요성을 가진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한국 농어촌건축대전'은 건축전문가와 학생의 눈을 통해 농어촌 건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농어촌의 문제와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건축전문가 참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문제, 도시와 농어촌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 물음을 던지는 가운데 지역주민, 시민, 정부, 관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농어촌의 미래를 고민하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지난해부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건 축부문 외에 기성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공건축부문'과 '초대작가부문'을 신설함으로써 더 많은 건축사들이 농어촌의 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준공건 축부문'은 농어촌 지역특성을 담은 우수한 건축물과 지역 건축사를 발굴 · 육성하고, '초대작가부문'은 농어촌지역의 정서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 낼 수 있는 공간과 환경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아직은 농어촌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축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경제·사회가 변모함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생명산업공간, 환경생태공간,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어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당면한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축사들의 참여는 필연적이다.

농어촌건축의 가능성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건축문화가 차지하는 비중 은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제안을 하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건축대전과 농어촌 건축문화에 건 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圖

필자는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괴를 졸업 후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 재학중이다. ㈜혜원까치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웨스를 거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사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아름다운건축물 명판



라 스칼라(La Scala)와 오선지

La Scala and manuscript paper

이흥렬 | 포토그룹(PhotoGroup) 대표

'떼아뜨로 알라 스칼라(Teatro alla Scala)'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다.

1778년 밀라노를 지배하던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명에 따라 세워진 극장으로 '살리에리(Salieri)'의 오페라 '에우로빠 리꼬노슈따(Europa Riconosciuta)'가 개관공연으로 초연되었다.

이탈리아 유학시절, 학교에 가려면 이 근처를 지나야 했고, 당시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으로는 비싼 관람료가 부담스러워 그저 공연 끝나고 우르르 몰려나오는 모피 입은 부인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서 공연하게 된 한 오페라 가수를 취재차 만났고, 본인의 공연사진을 몇 장 찍어 달라는 개인적인 의뢰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고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주니 '필름 값이나 하시라'고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단돈 몇 만원을 내밀었다. 그때 이렇게 답했었다. '작곡가가 오선지 값 받고 작곡합니까? 그냥 넣어두시죠.'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항변이었지만 그 가수는 무안했을 것이다. 굳이 변명해야 한다면, 혈기 넘치는 젊은 시절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라 스칼라극장이 단순히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명에 따라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시작은 그러했지만,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 작품이라는 자부심과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위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열정이 없었다면 저렇게 만들지는 못했으리라. 다른 위대한 건축물도 마찬가지이다.

필름 값이나 오선지 값, 시멘트와 철근값이 아닌 지식이나 열정, 예술성 등 무형의 것들에 대해 적절한 값 어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꿈꾼다. 또한, 사진가는, 작곡가는, 그리고 건축사는 들어간 재료만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무형의 높은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D-800이라는 3,600만 고화소 디지털카메라가 새로 나왔다. 당연히 사진계의 화젯거리다. 필름을 사용하던 아날로그 사진 시대에는 새로 나온 필름을 사면 화질이 좋아졌다. 디지털 시대에는 비싼 카메라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창조적인 건 둘째 치고, 디지털이라 필름 값이 안 들었으니 오히려 사진가격을 깎아달라는 분들에게 카메라 가격을 어떻게 부담시킬까가 당장 고민거리이다.

어쩌면 '라 스칼라'가 세워진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뒤늦고 창조적 예술가는 배고픈 시대인지도 모르겠다. 圖

필자는 사진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Media Artist)로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Istituto Europeo di Design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포토그룹 (PhotoGroup)의 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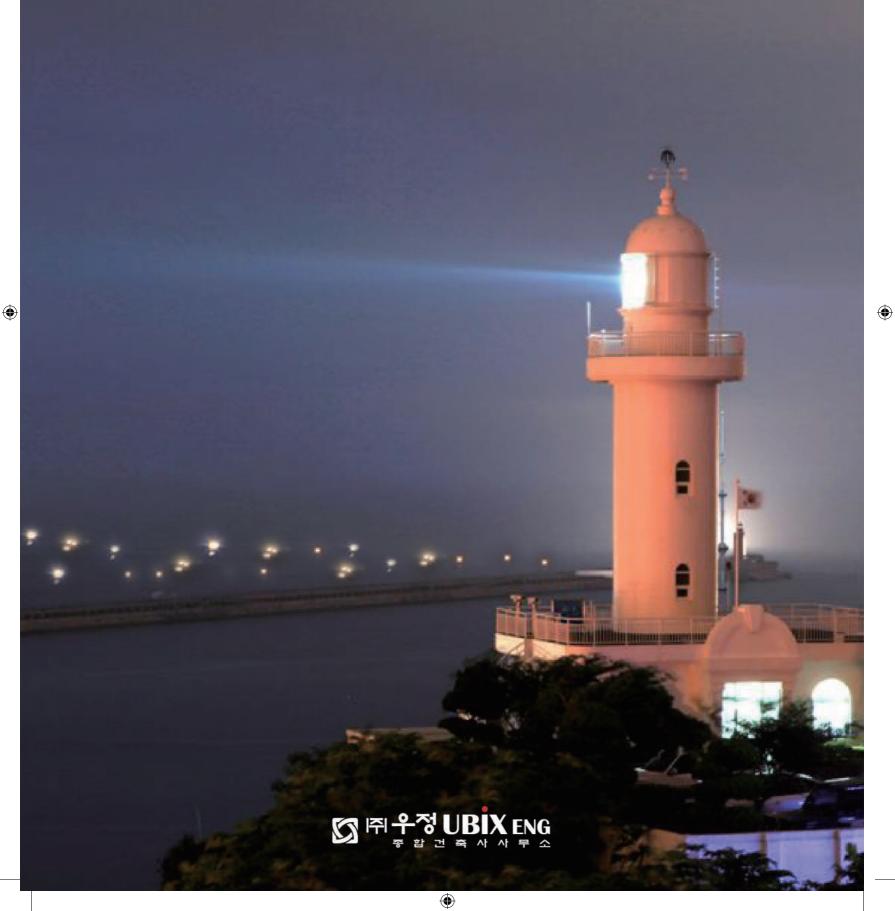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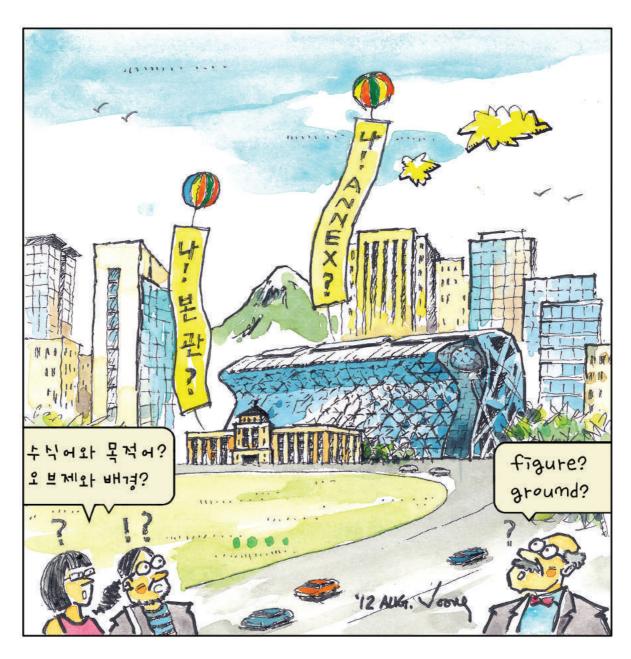
•

거대한 바다위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작지만 강한 정보의 배를 띄웁니다.

大洋 위로 建築과 自然과 人이 융합되는 수정유빅스 만의 생각의 축을 재편함과 동시에 연안의 의미있는 등대이기를 자임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지속가능한 건축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구분이 모호해요?!



김낙중 | Kim, Nak-jung

- 홍익대, 미 Pratt 건축대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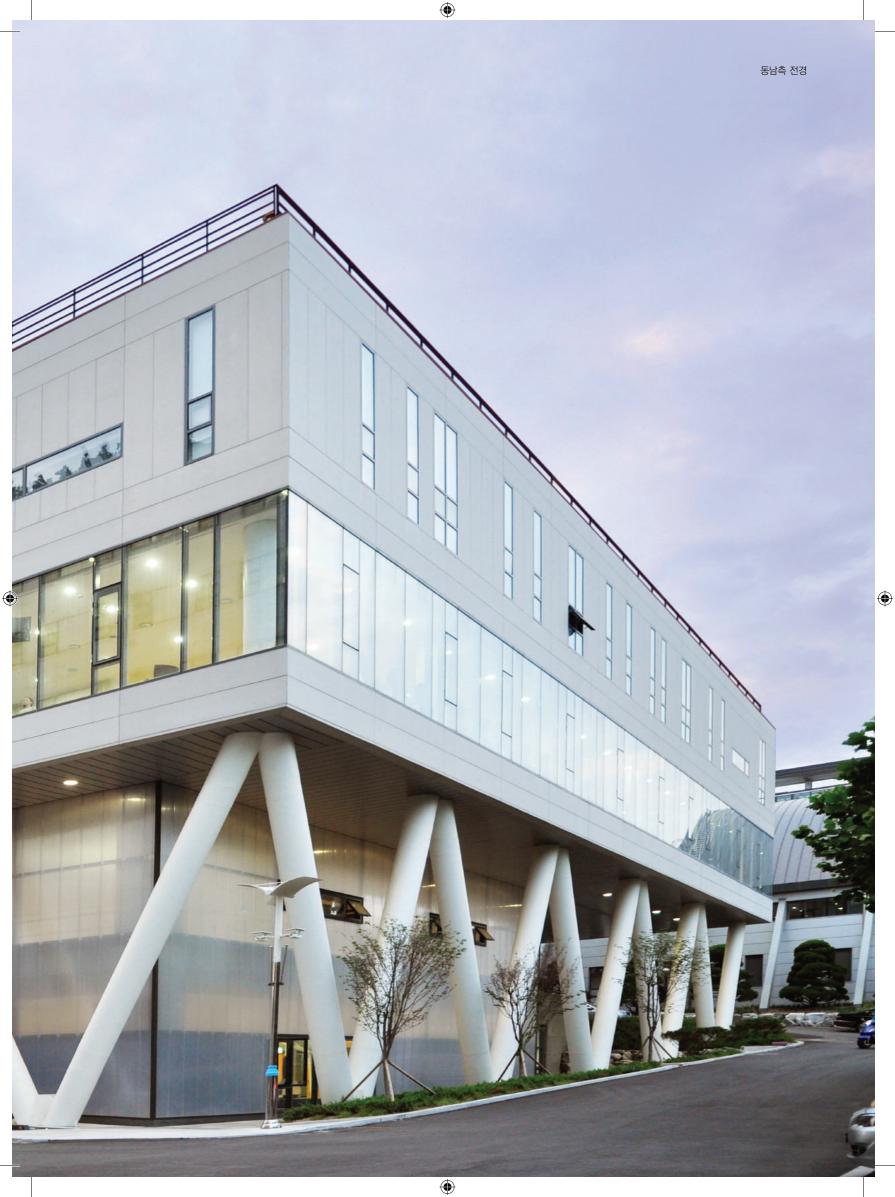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WORKS

연세대학교 스포츠센터 YONSEI SPORTS CENTER,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스포츠 센터

YONSEI SPORTS CENTER, YONSEI UNIVERSITY

건축주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설계자 | 신춘규_KIRA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김유홍, 이창수, 고민정, 소현진

• 전문기술협력

토목: 이병창 (주. 서준엔지니어링)구조: 김석구 (주. 쓰리디 구조)기계: 김기배 (주. 유원이엔지)

- 전기 · 통신설비 : 김낙경 (주. 디투엔지니어링)

감리자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토목: 이병창 (주. 서준엔지니어링)

구조 : 이장홍 (이공구조)기계 : 김기배 (주. 유원이엔지)

- 전기·통신설비: 김낙경 (주. 디투엔지니어링)

- 소방 : 하상만 (주. 영설계엔지니어링)

시공사 | (주) 서희건설 (현장소장 : 박태규)

대지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대지면적(Site Area) | 858,628.40m²

건축면적(Building Area) | 2,330.24㎡

연면적(Gross Floor Area) | 6,469.37㎡

규모(Building Scope) | B1-3F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실외 _ THK50압출성형시멘트판넬, THK40 THERMOCLICK(폴리카보네이트) 창호 _ 150X60알루미늄단열바 W/THK22투명복층유리

공사기간 | 2010. 12 ~ 2012. 03

Client | Yonsei University

Architect | Shin, Chun-Gyu

Project Team | Kim, You-hong / Lee, Chang-soo / Ko, Min-jung / Soh, Hyun-jin General Constractor | Seohee Const. Co.Ltd

Structural Engineer | 3D Structure. Co.Ltd / Yikong Structure.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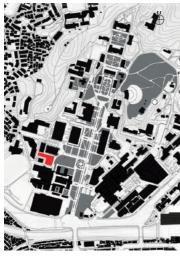
Mechanical Engineer | Youwon ENG. Co.Ltd

Electrical Engineer | D2 Engineering.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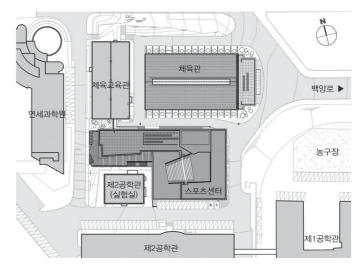
Location |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Structure | Steel Fram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period | 2010. 12 ~ 2012. 03



Campus map Yonsei University



본 프로젝트는 3개의 대형건축사무소와 2개의 소규모 아틀리에가 지명을 받아 현상설계를 통해 실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핀접합 아치형식의 구조 를 가진 연세의 스포츠 산실이 되어 온 50여년이 된 체육관의 리모델링과 함께 스포츠센터의 설계가 요청되었다.

스포츠센터는 체육관을 우측으로 둔 작은 동산이 있는 부지에 위치하며, 남측으로 제2공학관과 면하게 되어 있다. 체육관과 제2공학관 사이의 부지는 남북으로 약 3미터 이상, 그리고 동서간 지형차가 13미터 이상이나 나는 상황이었다. 요구된 프로그램으로는 농구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목적의 구기장, 각 종목별 용도의 다목적실, 휘트니스 센터와 체육교육과를 위한 교육시설 (교수연구실, 소·중 강의실 및 국제 세미나가 가능한 대강의실) 등이었다. 또한 추후 4개층의 수직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었으며 남서측 코너의 2공학관 측으로 배치되어 있는 기존의 공학실험실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었다.

계획상 가장 큰 도전은 지형을 고려하며 스포츠센터가 기존의 체육 교육관과 체육관과 가능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하며 기존의 통로들을 살려 캠퍼스 공간 간 기존의 동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계획안은 기존의 부지 조건을 고려하여 동서의 지형을 따라 배치함으로써 동측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상징인 백양로에서 보일 수 있게 했다. 이 결정은 휘트니스 센터가 백양로와 적극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체육관과 제2 공학관 사이의 공간 안에서 동서로 건물을 길게 배치하게 되고 레벨을 이용 각층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체육관과 체육교육관의 기존 건물의 사이공간에 피로티를 이용한 진입공간이 형성되어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배치는 일반 학생들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하부에 두고 백양로 측에서 진입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는 중간층에 필로티를 두어 체육관련 사용자들이 진입하게 계획했다. 또한 서로 다른 레벨에서 진입되는 동선이 내부의 직선계단을 통해 연계 되도록 한 것이 계획의 주안점이되었다. 특히 하부를 구성하는 구기장은 셋백하여 반투명 소재의 폴리카보네이트 재료를 사용하고 노출된 원형철골기둥들의 내부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갖고 상부의 단순한 매스를 받쳐주어 다이나믹한 스포츠센터의 이미지를 살리고 저했다.

앞으로 실현될지 모르는 4개 층의 증축을 반영하느라 기둥이 많이 커졌다. 이는 내외부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가벼움, 경쾌함을 시원하게 얻어내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예산상의 문제로 완성이 되지 못한 지붕의 옥외 다목적계단 주변의 하늘정원이 못내 아쉽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운동시설로 보여 진다. 부족하나마 체육관과 연계되어 연세의 체육공간의 중심이 되어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현상설계 후 사용자가 될





체육과 교수들이나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현상설계시 제안된 계획 중 미흡한 것들을 보완하고 관재처와 협의하며 연세대가 갖고 있는 시설기준을 맞추다보니 제시된 면적 및 예산을 훌쩍 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아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설계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협력해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마무리까지 같이해준 관재처의 각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들에게 감사드린다.

Yonsei Sports Complex was awarded through a design competition with Yonsei Gymnasium Remodeling project, CGS Architects and Associates was one of five invited firms to compete against three large firms and one atelier type small firm,

Major program requirement was to accommodate several multipurpose rooms, fitness center for yonsei students and faculties, and faculty rooms, experimental rooms and classrooms for Sports Education Department, Also, the connectivity between two existing sports related facilities was required.

The site is located along east to west between existing gymnasium and the Third Engineering Building and open towards eastside to Baekyang Ro, the symbolic boulevard of Yonsei University. The site has difference in level from west to east by more than 13 meters and the site itself was a small mounded landscaped area which was isolated with stone retained walls accommodating a temporary facility at the top,

So, design concept started with an idea of how to utilize with this level difference making it a focal spot to connect facilities rather than separating them. Two main concepts were adapted for this project. One was to maximize accessibility from all sides to access and connect facilities. The second was to separate two different functions by utilizing the level difference. Therefore, facilities such as multipurpose rooms, fitness center for yonsei students and faculties are

designed to locate at the bottom of the center and the other facilities such as classrooms, experimental rooms and faculty rooms for Sports Education Department to be at the top levels. Then with a straight staircase inside and a pillotti, facilitie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 stepped roof terrace utilizing the section of a large classroom faces the outdoor football field to symbolize the connectivity between facilities of sports education. This roof garden is intended to provide an outdoor refreshing space for all users and can be utilized for outdoor class in fine weather conditions occasionally. The roof garden remained as unfinished due to the budget constraint,

My appreciation goes to all people involved in the whole process from the design to the construction and wish that this center is the spot of the Yonsei Campus to be loved and remembered to many Yonsei people,















01_ 주출입구 02_ 로비/복도 03_ 선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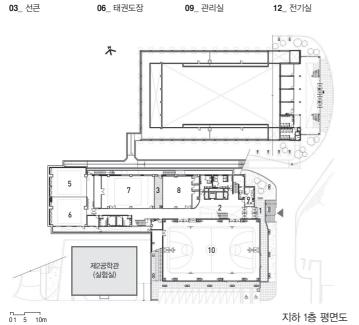
04_ 필로티 **05**_ 유도장 07_ 다목적(검도장) 08_ 다목적(에어로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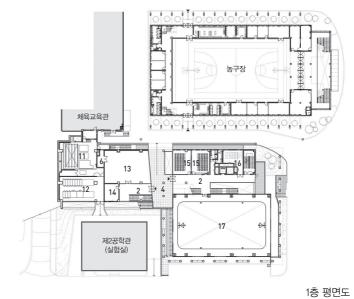
10_ 구기장 11_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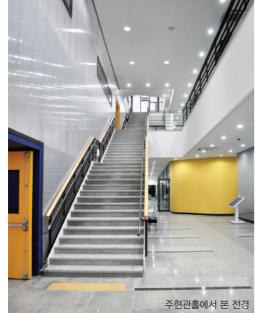
13_ 체조(펜싱)장 14_ 실험실

15_ 소강의실

16_ 공조실 17_ 구기장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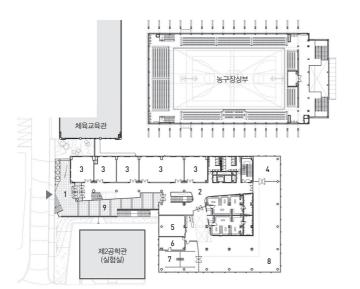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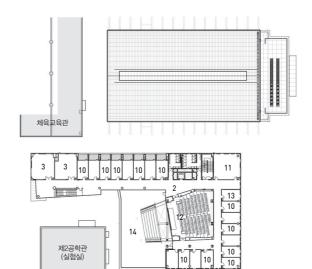


01_ 부출입구 02_ 홀/복도 **03**_ 실험실 1~7

(

- 04_ 요가/필라테스룸
 - **05**_ 공조실 **06**_ 센터장실/사무실
- 07_ 검사실 08_ 휘트니스 센터 09_ 테라스
- 10_ 교수연구실 1~18 11_ 중강의실 12_ 대강의실
- 13_ 세미나실 14_ 하늘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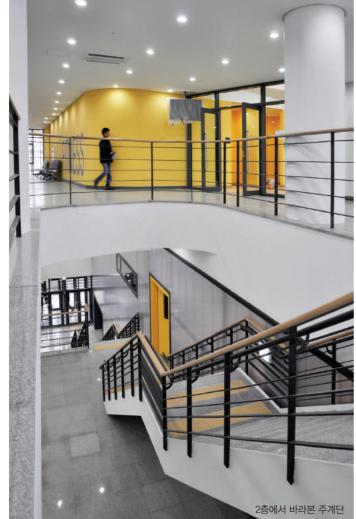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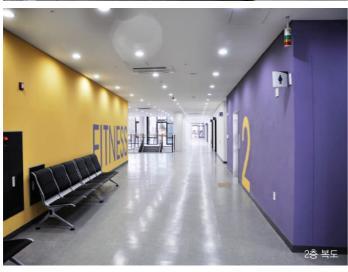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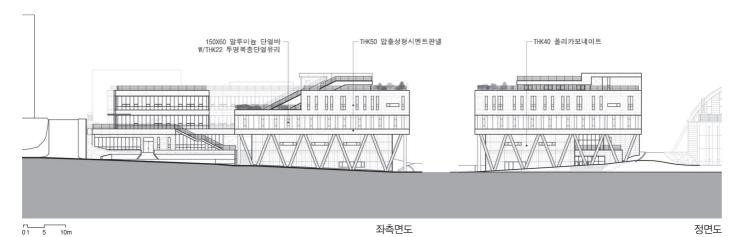












024 WORKS _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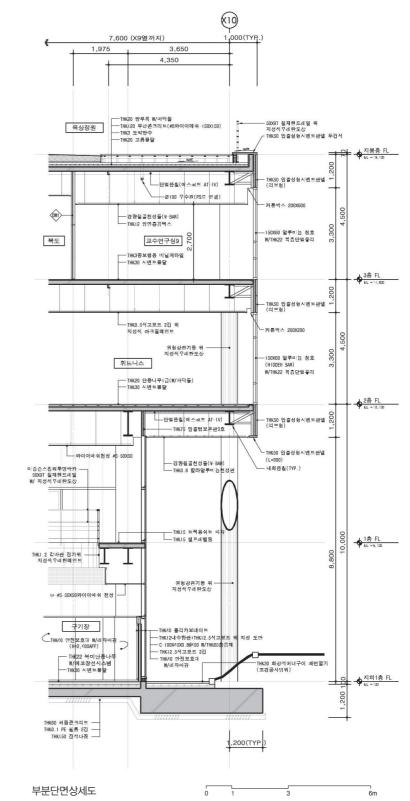
(











 01_ 주출입구
 05_ 부출입구
 09_ 태권도장

 02_ 로비
 06_ 테라스
 10_ 전기실

 03_ 복도
 07_ 선큰
 11_ 휘트니스

 04_ 필로티
 08_ 홀
 12_ 샤워룸

 09_ 태권도장
 13_ 락커룸(여)

 10_ 전기실
 14_ 세미나실

 11 회트니스
 15 대강의실

 14_ 세미나실
 18_ 구기상/도

 15_ 대강의실
 19_ 실험실

 16_ 하늘정원
 20_ 공조실

17_ 용원실(남)21_ 센터장실18_ 구기장/보관실22_ 검사실19_ 실험실23_ 교수연구실

횡단면도

2012 KOREAN ARCHITECTS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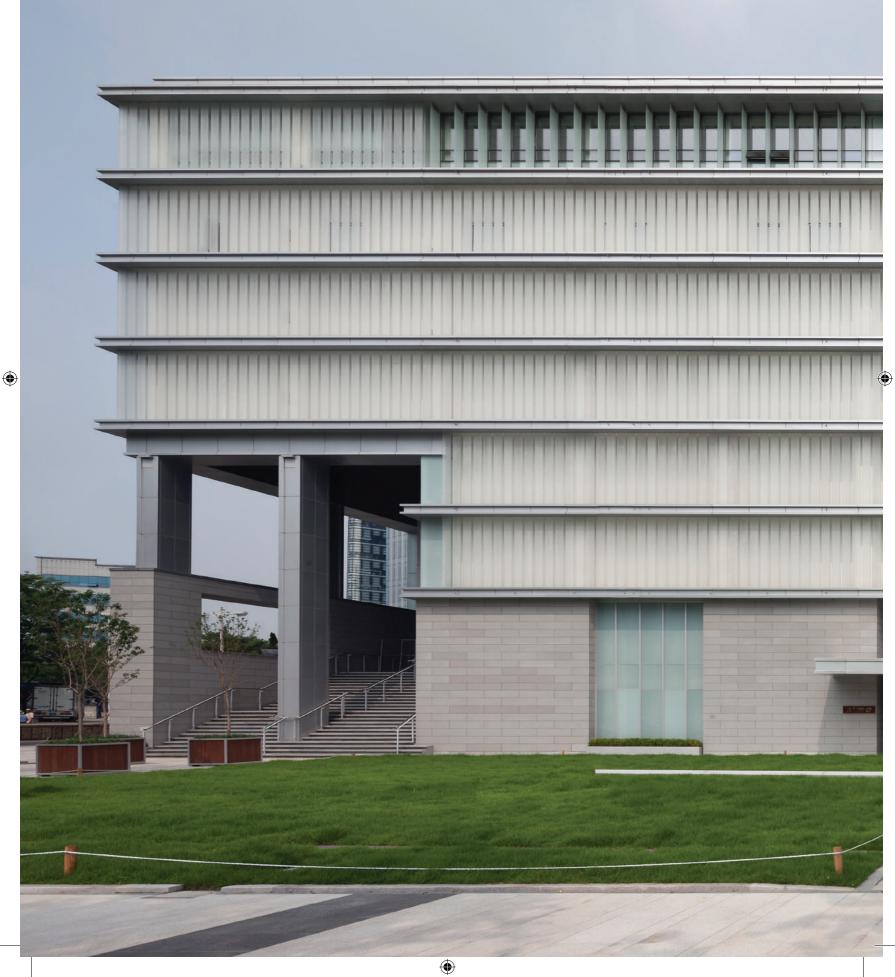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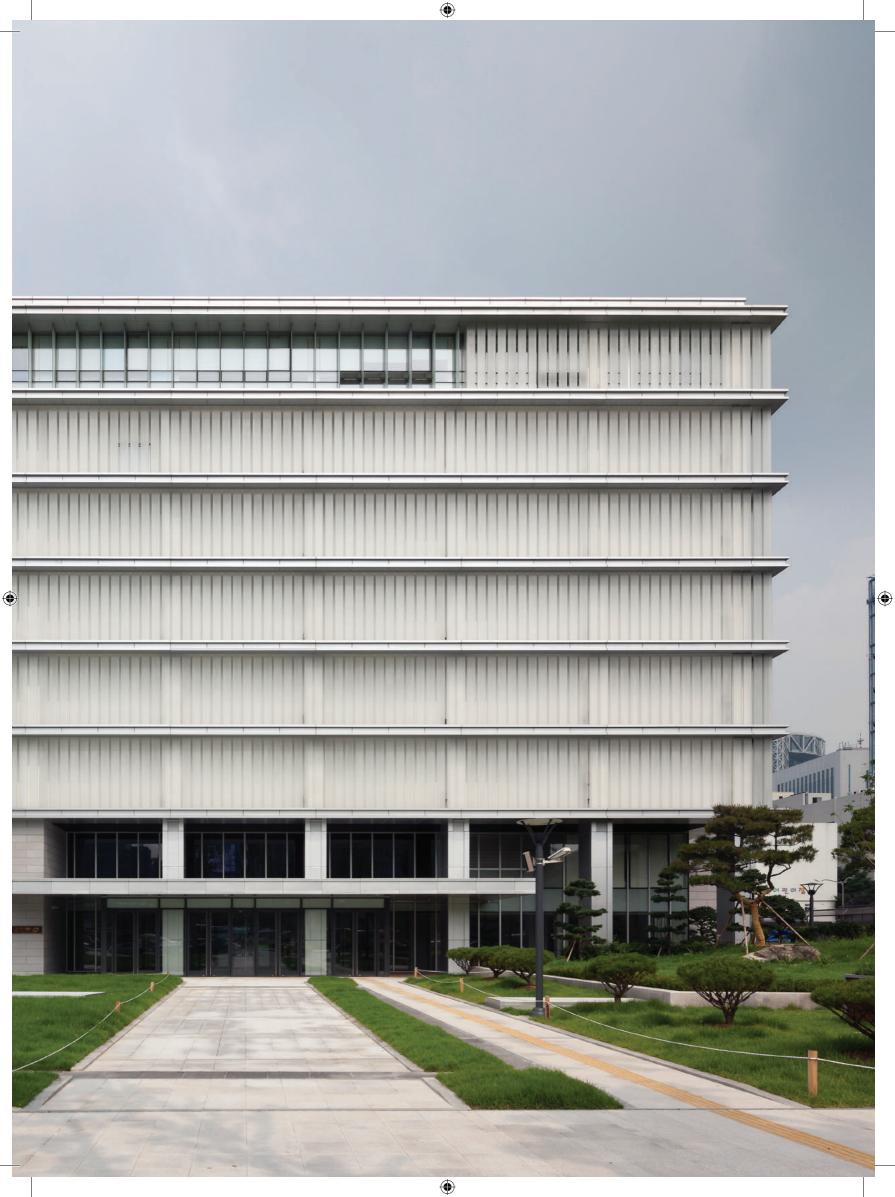


WORKS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CONTEMPORARY HISTORY





lacktriangle

WORKS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축주 | 문화체육관광부(조달청 대행)

설계자 | 김진구_KIRA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경민호, 백의현, 김복수, 이상포, 고민규, 백승용, 기현철, 최재혁 김명진, 최동식, 방용민, 김해진, 유병민, 노영우, 김재식, 최홍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창민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나라기술단 / (주)남도티이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삼원엠이씨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82-13

대지면적(Site Area) | 6,444.70m

건축면적(Building Area) | 2,857.22㎡

연면적(Gross Floor Area) | 10,733.76m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4.33%

용적률(Floor Area Ratio) | 166.55%

규모(Building Scope) | 8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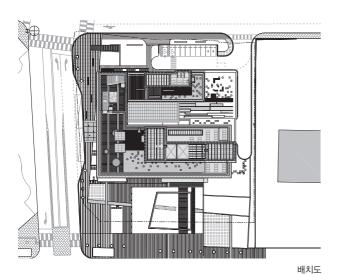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철골보+SRC기둥) 일부 Flat Slab구조

주요마감재 | U-GLASS, 화강석, 로이아르곤복층유리, 로이삼중유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 02. 26 ~ 2011. 04. 08 공사기간 | 2010. 11, 25 ~ 2012. 05. 23

Clien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chitect | JUNGLIM ARCHITECTURE

Location | Sejong-ro 82-1,82-13, Jongno-gu, Seoul Structure | R.C, S.R.C, S.C Structural Engineer | DAELIM



도시와 엮어주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이곳 '세종로'가 지닌 도시적 스케일에 대한 해석과 동시에, 단절의 역사를 간직한 '땅'의 도시적 부활을 고민했기 때문이다. 새로이 드러나는 역사박물관은 경복궁의 거대한 도시 스케일에 대응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경복궁과 인왕산을 향해 낮게 열려드리운다.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역사가로는 '열려진 대지'를 형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 문화활동을 담아내는 새로운 대지(ground)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역사박물관'으로써 도시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위(activity)를 유발시킨다.

한편 도시에서 이어지는 '길'들은 판의 상부와 하부를 통해 내부로 관입되어 전 시실의 내부동선으로 연결된다. 이로써 연속적인 공간구성을 통한 건물 내외부 의 상호관입을 만들어낸다.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의 시간을 기억하는 장소로서, 지하에 간직되어 있는 과거의 흔적과 같이 적층된 켜(layer)의 의미로 전시공간을 형성해낸다. 전시실은 시간을 기억하는 장소로서 주변의 도시적 관계나 기억들이 흔적으로 남으며 내부의 전시물과 어우러진 '기억이 남겨진 산책로'를 형성하게 된다. 이 제 역사박물관은 흐름(flow)과 소통(interactive)의 공간이자 머물고 싶은 장소로서 흔적과 도시 그 자체를 박물관으로 엮어주어 새로운 '기억이 새겨진 땅'이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이 시대의 풍경이자, 역사적 흐름과 함께하는 한국적 '길'이된다.

광화문광장, 세종로 그리고 국가상징거리

광화문광장의 조선시대 모습은 당시의 중앙행정기관들인 육조관아가 좌우로 배치되어 광화문 앞의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관 아들의 담(장랑)으로 둘러싸인 육조거리라 칭하여졌으며, 광화문과 종로를 연결하는 국가 상징가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육조거리는 일제강점기의 광화문 통을 거쳐, 근대화 시기로 접어들면서 현재의 세종로 명칭으로 변경되고 차도가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1축의 역할을 담고, 역사문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광장이 조성되어 다시금 보행자에게 공간이 환원되었으며, 광화문은 고종2년(1865) 중 건 때의 목조 구조로 복원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중학천은 친환경 수변공 간으로 재조성 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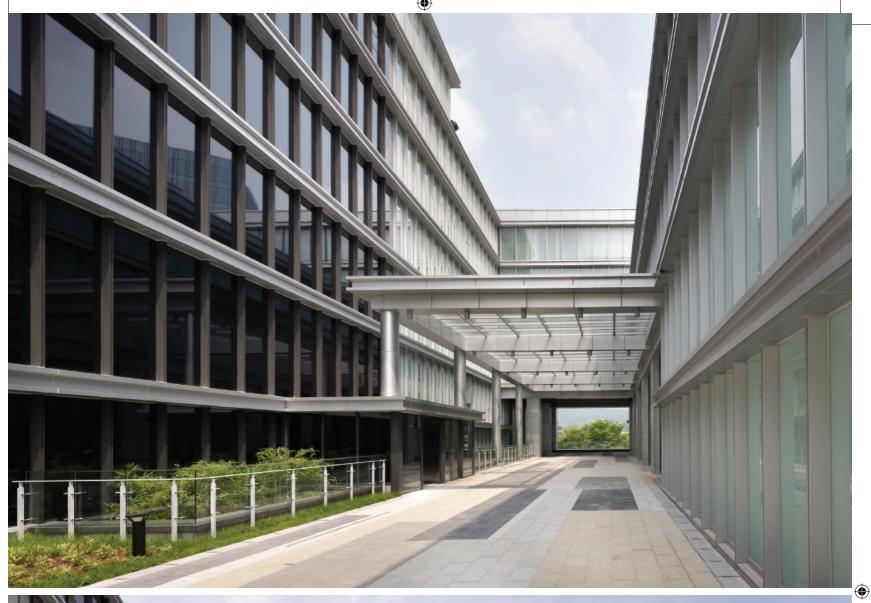
이처럼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부터 근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가로로서, 역사적 유적지로서,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였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인프라가 집약되어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청사의 리모델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전환하여 다시 활용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리모델링은 대한민국의 근대역사와 함께한 건물을 보존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지하 개발을 지양함으로써 땅속의 매장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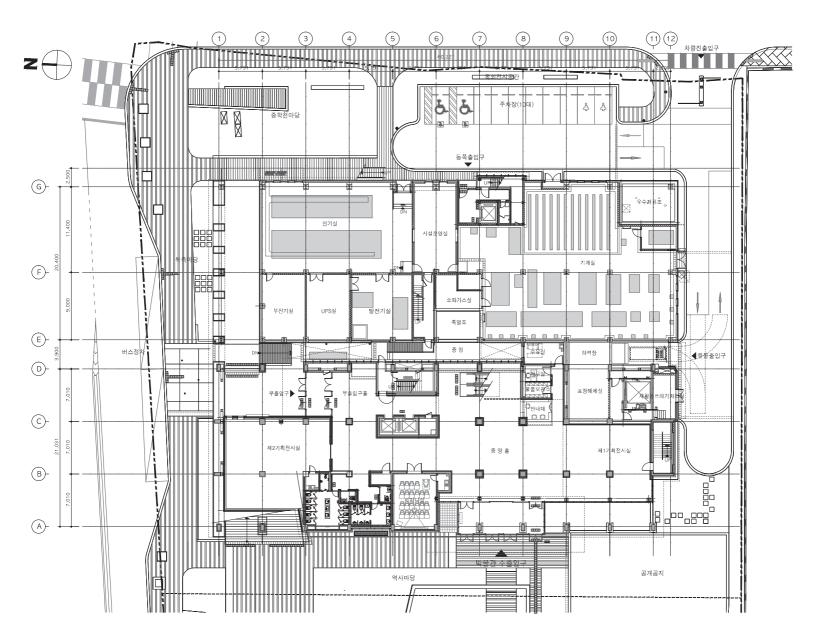
이에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장소적, 공간적, 미적 의미를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요구된다. 더불어 노후화된 구조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지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기존 구조체의 재활용은 환경부하(Co₂발생)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법과도 맥을 같이 한다. 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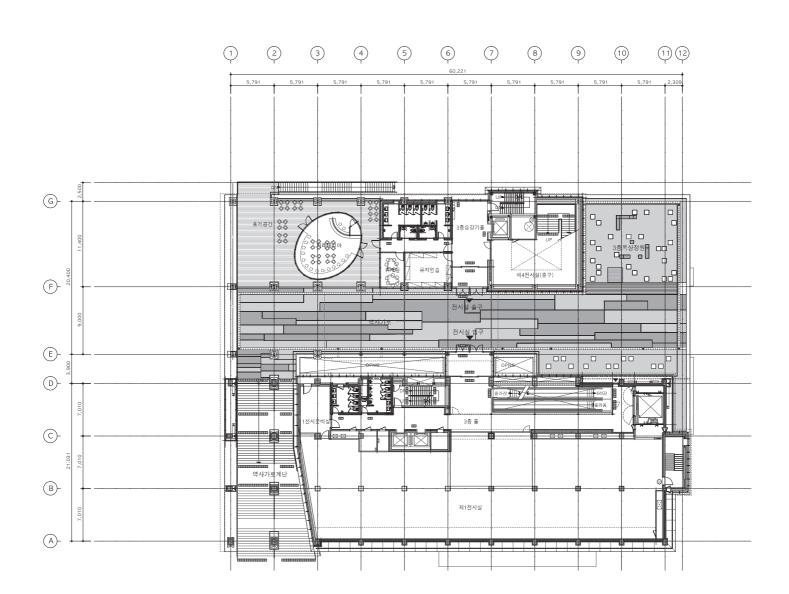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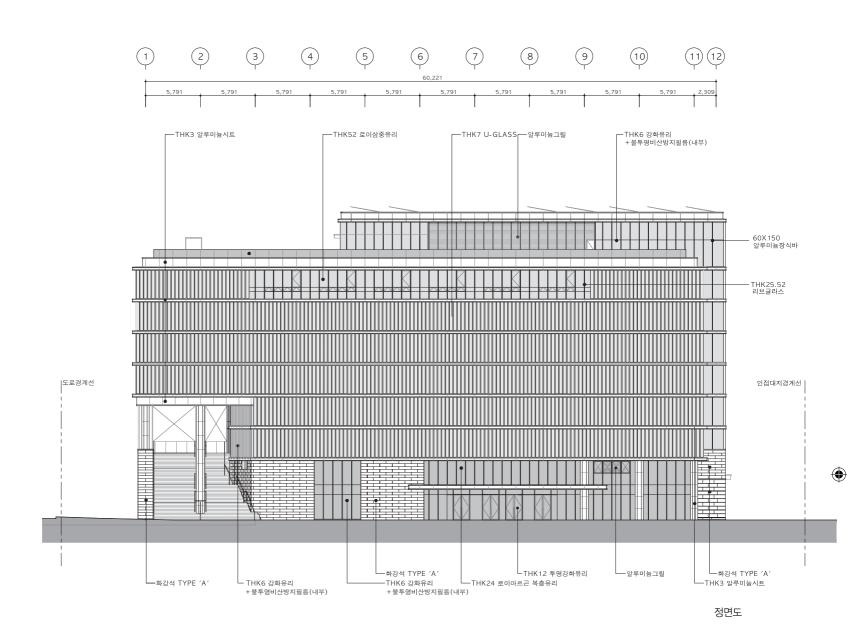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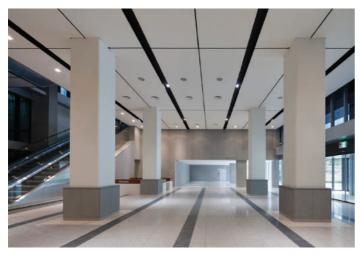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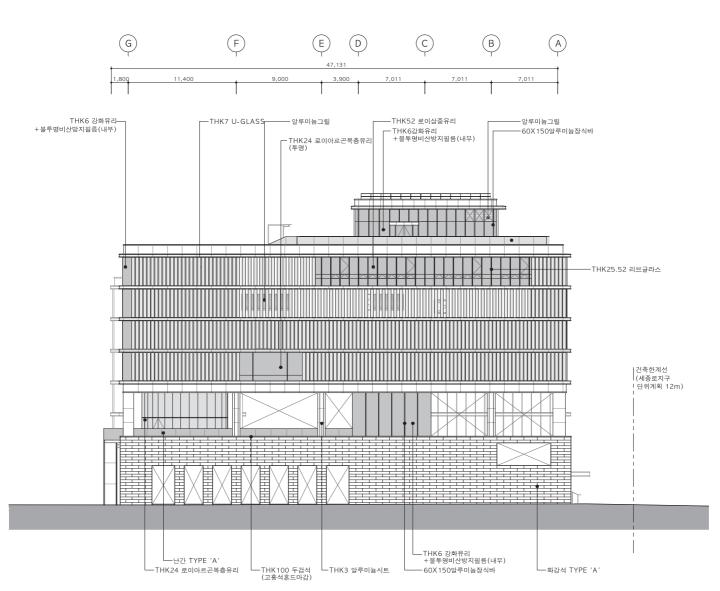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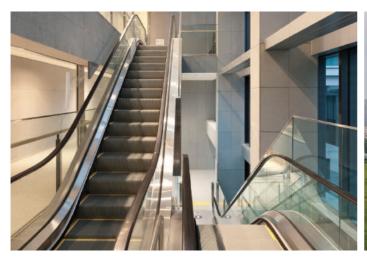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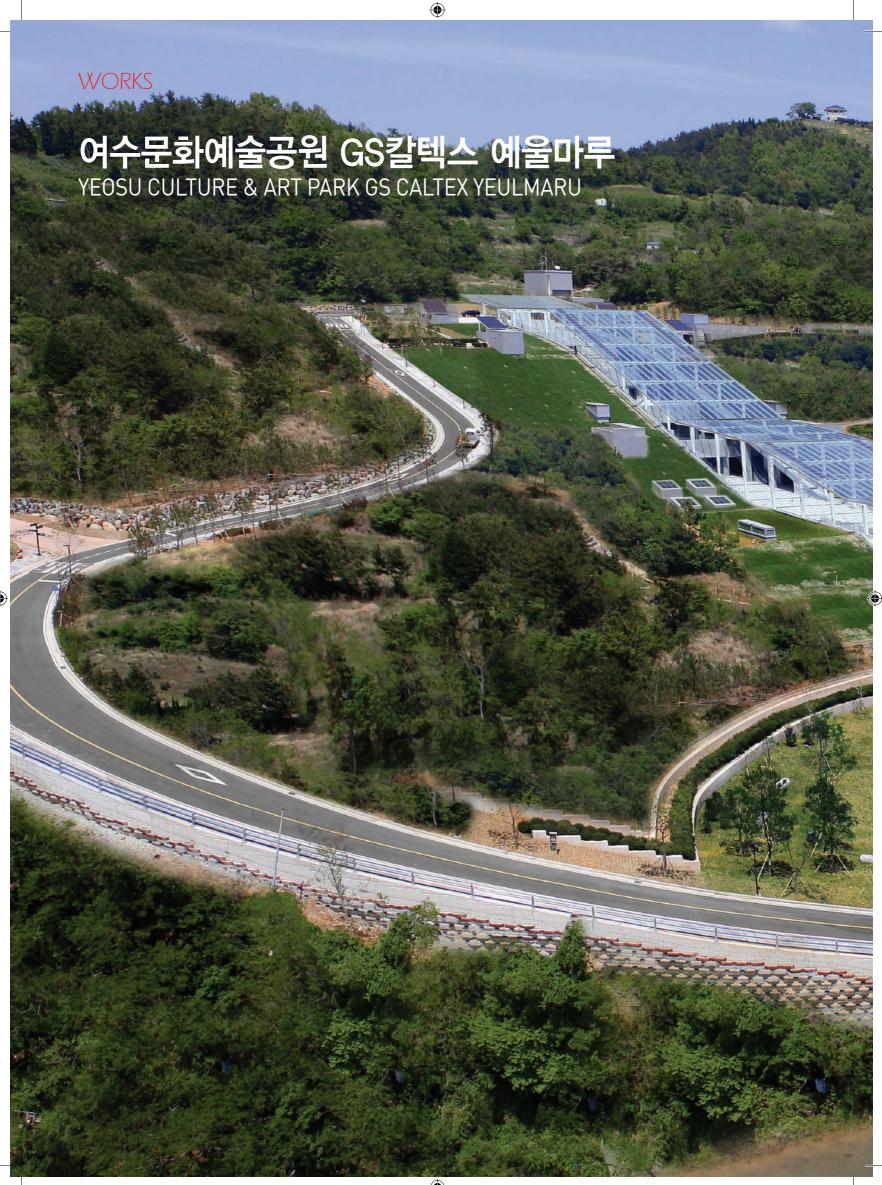


좌측면도



•









건축주 | GS칼텍스재단

설계자 | 김병현_KIRA |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김영관, 김현섭, 홍현정, 김진철, 박미로

• 국외참여자 : Dominique Perrault(계획설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동양구조안전기술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나라기술단 / (주)안국이앤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주)융도엔지니어링

감리자 | (주)창조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GS건설㈜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1002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대지면적(Site Area) | 40,5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741.0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145.9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77%

용적률(Floor Area Ratio) | 0.84%

규모(Building Scope) | B7-1F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거창석, 고흥석, THK21 강화접합유리 내부마감_대리석, 무늬목, U-글라스, 벽체도장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09 ~ 2011. 02

공사기간 | 2011. 01. 25 ~ 2012. 04. 19

사진(Photographer) | Kim, Taek-u

Architect | Kim, Byeong-hyeon

Project team | Kim, Young-kwan / Kim, Hyeon-seob Hong, Hyeon-jeong / Kim, Jin-cheol / Park, Mi-ro

Location | 1002, Sijeon-dong, Yeosu-si, Jeollanam-do, Korea

Structure | S.R.C,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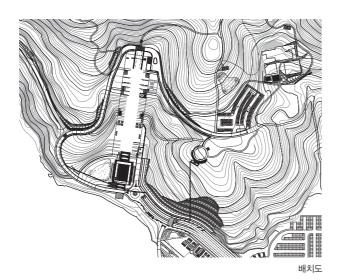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Power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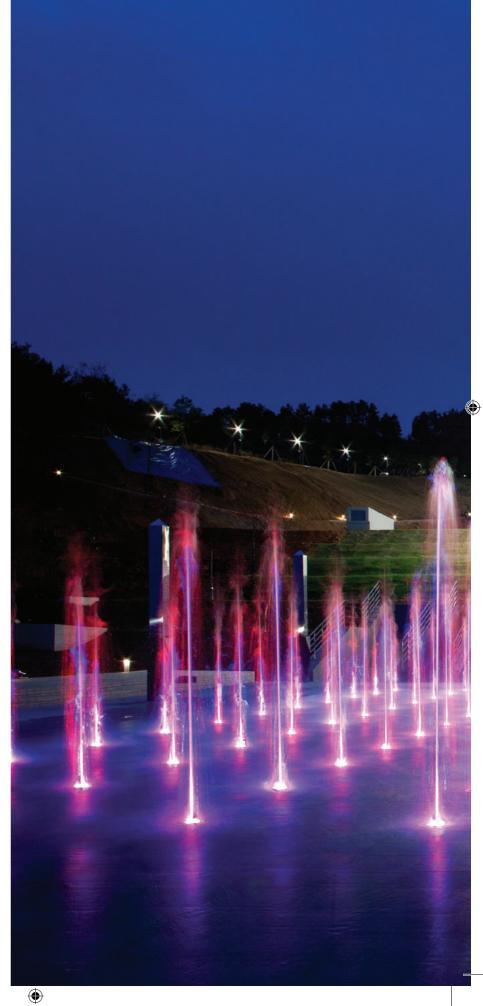
HVAC Engineer | Daewang engineering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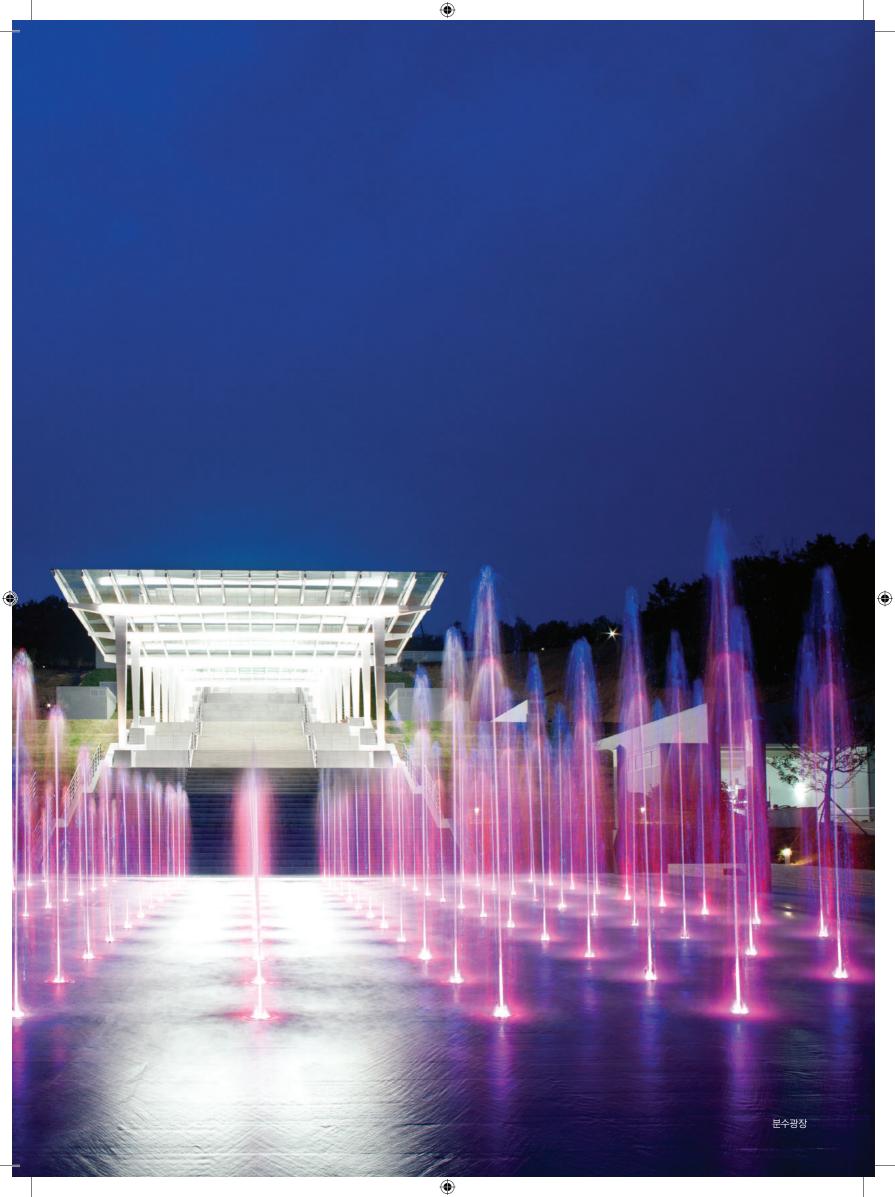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Daewang engineering.Co.Ltd.

Design period | 2009. 09 ~ 2011. 02

Construction period | 2011. 01. 25 ~ 2012. 04. 19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예울마루'는 지역 문화 발전과 2012 여수엑스포 개최에 맞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인 GS칼텍스에 의해 계획 되었다.

예울마루의 디자인은 건축과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공연장과 전시장을 포함하는 주시설을 덮는 150미터의 '글라스리 버'는 망마산 계곡에서 바다로 흐르는 특별하고 역동적인 물의 이미지를 그려 낸다

또한 '예울마루'는 계곡에 흐르는 역동적인 물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외관 컨셉을 내부로 끌어내 외부의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내부 공간의 시각적 소통을 통해 여수의 자연을 담을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계획하였다.

친환경개발의 랜드마크로서, '예울마루'는 태양광 발전, 우수활용 그리고 열미로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단지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 되었다.

주요 시설로서 다목적 공연장(1,021석+302석), 전시관(4개), 에너지 홍보관, 시민 휴게시설 및 옥외 해안공원 등이 있다.

※예울마루: 문화예술의 너울(파도)이 가득 넘치고, 전통 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

In line with the 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hosting of 2012 Yeosu Expo, 'Yeosu Culture & Art Park GS Caltex Yeulmaru' was planned by GS Caltex, the global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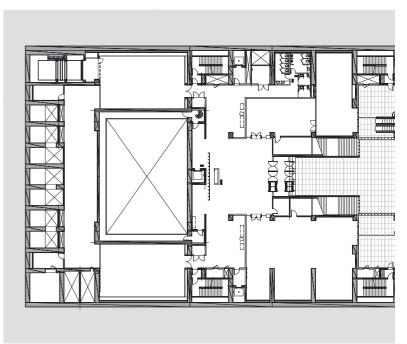
The design of Yeulmaru is focused on creating a harmony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The 150 meter-long "Glass River" over the major facilities including the Performance Hall and the Exhibition Hall renders a unique and dynamic imagery of water flowing from the Mt, Mangma valley to the sea.

And 'Yeulmaru' was planned a cultural art space containing the nature of Yeosu via visual communication between surrounding natural landscape and interior space, while maintaining the visual integrity of exterior and interior, by bringing the exterior concept with the image of dynamic water flowing in a valley into the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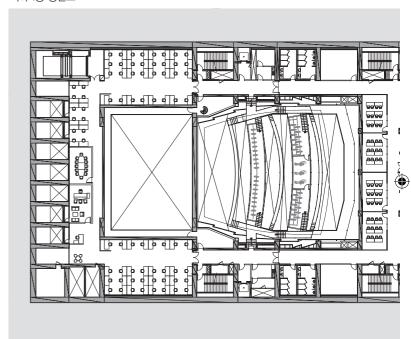
As a landmark of the "eco-friendly" development, it was designed to maximize energy efficiency by adopting renewable energy systems such as Solar Power and Rainwater Harvesting installed in the Glass River and the Thermal Labyrinth applied throughout the entire complex,

The main facilities are multi-purpose performance hall (1,021 seats + 302 seats), art gallery, energy PR hall, civil rest areas and outdoor seasid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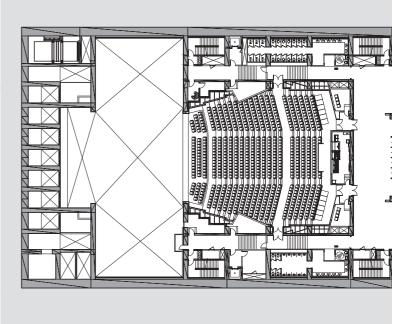
* Yeulmaru is full of wave of culture and art and it provides a rest area for the local community just like the comfortable floor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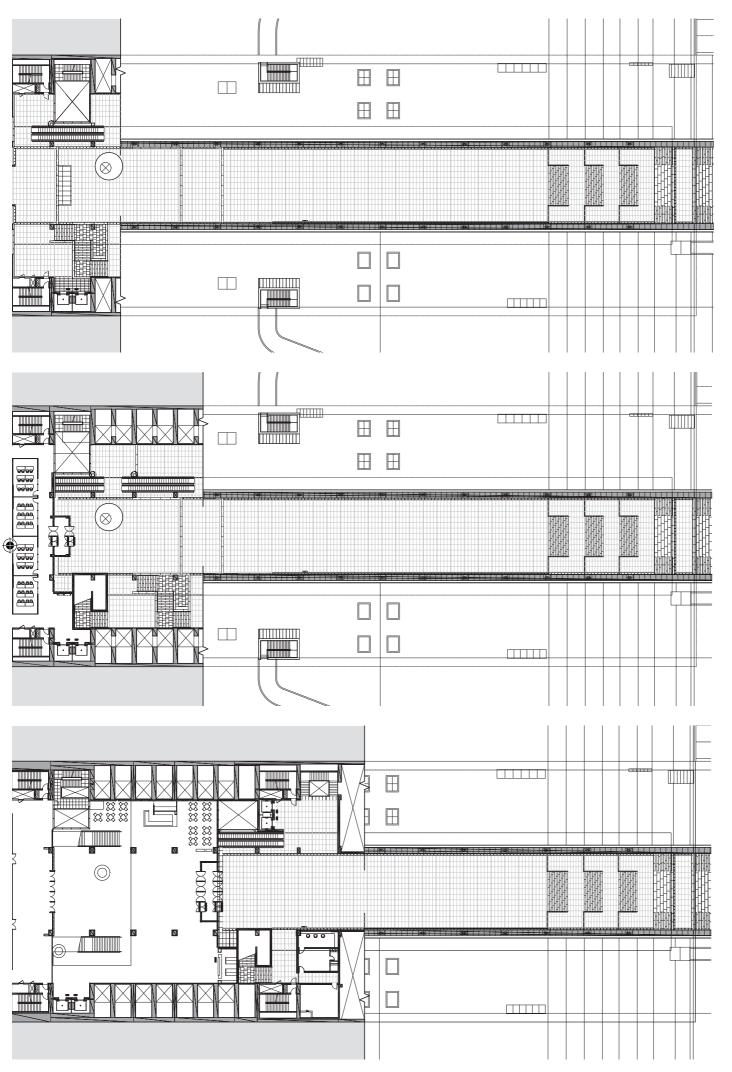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4층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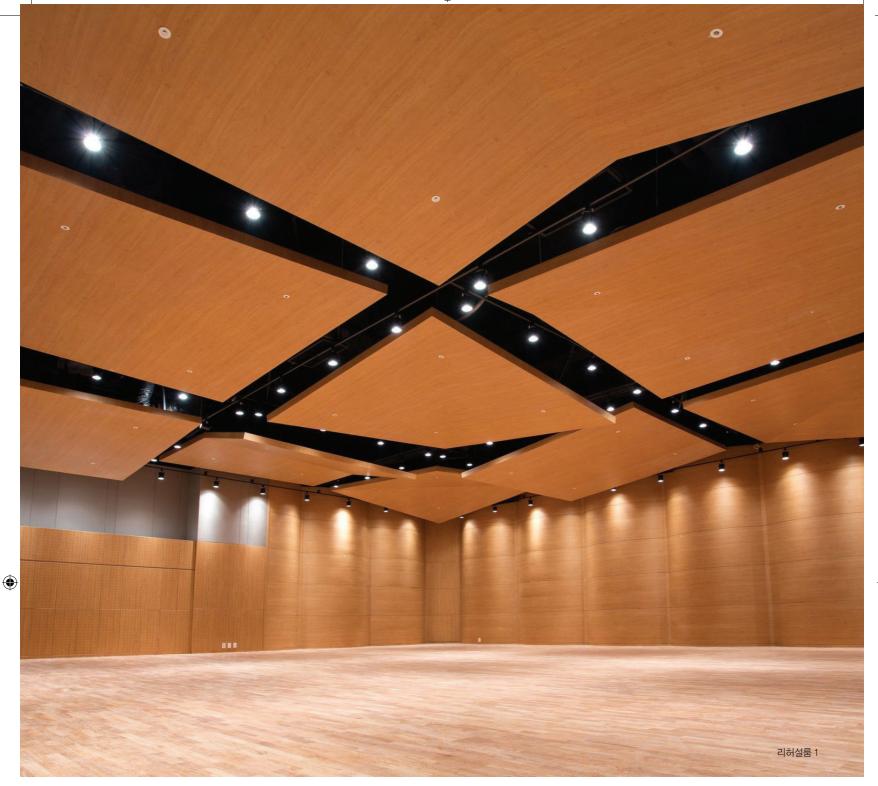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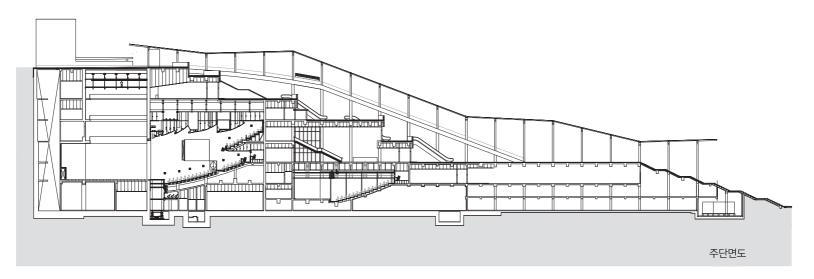




















WORKS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안산 생활관

CANON KOREA BUSINESS SOLUTION DORMITORY

건축주 |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설계자 | 유영재 KIRA | 신한남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이홍엽, 원혜연, 김창석, 오애향, 이중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제원 E&C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청우이엔지−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일조설비기술사사무소

- 토목분야 : (주)삼일이엔씨

- 조경분야 : (주)한길

감리자 | PLUS다래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롯데건설(주), 롯데 CM사업본부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48-1, 948-2 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1,958.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32.43㎡

연면적(Gross Floor Area) | 4,148.1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84%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0.21%

규모(Building Scope) | B1-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실외 _ 적벽돌, 현무암, 징크, 노출콘크리트

실내 _ 폴리싱타일, 데코타일, 우드륨깔기, 다채무늬페인트 실크벽지, 실크천정지, 마이텍스천정재

설계기간 | 기획 및 계획 2011. 05 ~2011. 06 / 실시설계 2011. 07 ~2011. 08

공사기간 | 2011. 08 ~2012. 05

사진(Photographer) | Lee, Won-eun (geo STUDIO)

Client | Canon Korea Business Solution

Architect | Yoo, Young-jae

Project Team | Lee, Hong-yeop / Won, Hye-yeon / Kim, Chang-seok Oh, Ae-hyang / Lee, Jung-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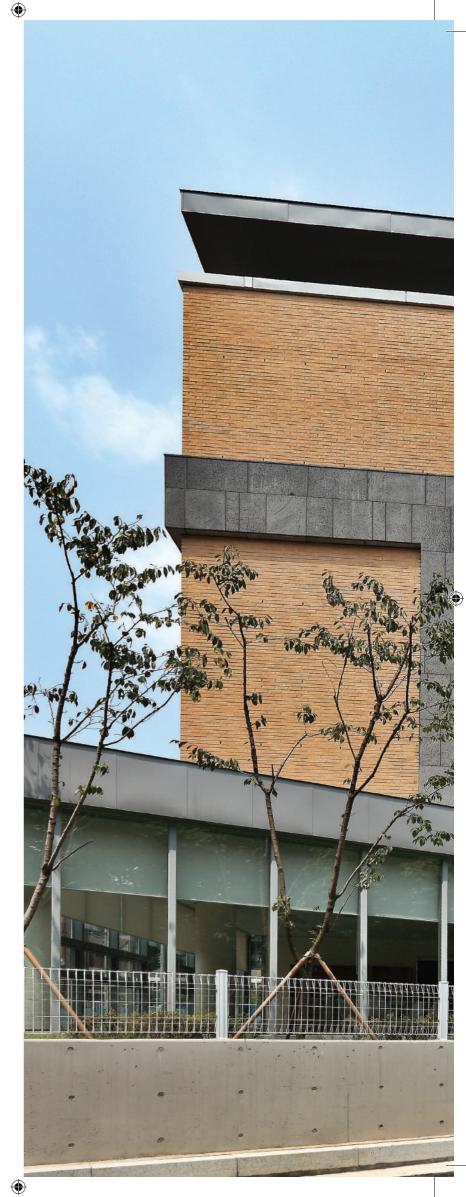
General Constructor | Lotte Construction

Location | 948-1,948-2, Wonkok-dong, Danwon-gu, Ansan-si, Kyungg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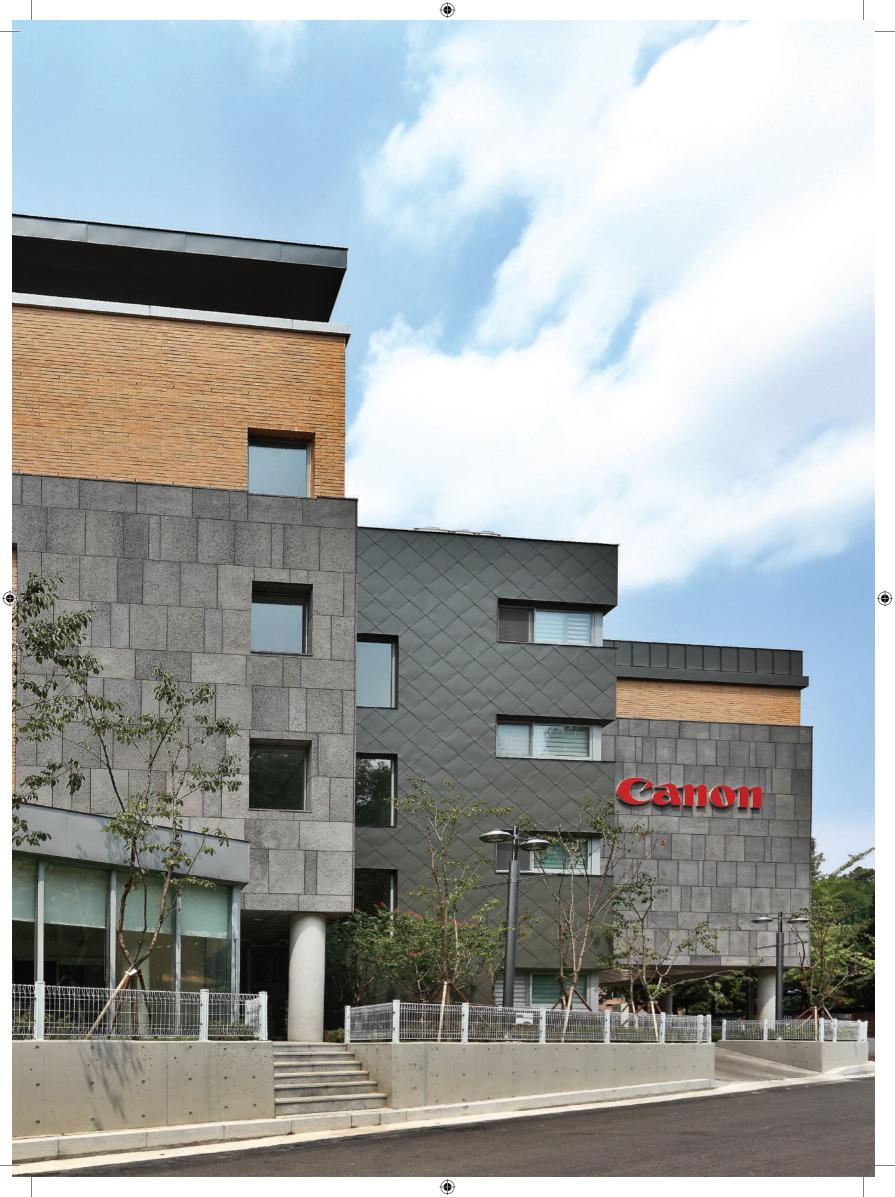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 Outside_Red brick, basalt, Zinc, exposed mass concrete
Inside_Polishing tile, Deco tile, Wood linoleum, Spray paint
Silk Wallpaper, Silk Ceiling paper, Ceiling Tex

Structure | R.C

 $\label{eq:period_2011.05} Design\ Period\ |\ Planning\ Period\ |\ 2011.05\ \sim\ 2011.06\ /\ Design\ Period\ |\ 2011.07\ \sim\ 2011.08$ $\ Construction\ period\ |\ 2011.08\ \sim\ 2012.05$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롯데그룹과 캐논그룹이 공동설립한 회사로 캐논 복사기 등 사무기기 전문 생산회사이다. 이 회사는 "일하는 방식의 혁명은 존 중받는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변화와 혁신은 진심으로 구성원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 는 모습이, 설계자에게도 강한 느낌으로 전달되었다. 이 기숙사 건설도 그 마음 의 연장선에서 시작되었다.

기숙사의 이름은 '공생관(共生館)'으로, 설계자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그릇을 머리에 두고 디자인에 임했다. 흔히 기숙사 건물이 가지게 되는 동일형태의 반복으로 인한 단조로움에서 탈피하고, 도시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어떻게 극복할지가계획의 주요 해결 과제였다.

단조로운 외형을 피하면서도 조잡해 보이지 않기 위해, 덩치가 크지만 수평 선을 따라 분절된 외형을 유지하고 이를 다시 원형의 필로티 기둥이 받치는 형태를 구성하여, 건물의 경쾌함을 더했다. 사용된 외장 재료는 사용자의 시각 적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밝은 황토색계열의 벽돌을 주로 사용하였고, 입구 의 현무암 외벽은 게이트로서의 튼실함의 이미지매칭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 한, 기숙사에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복도의 어둡고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늘정원을 둘러싼 대형유리창을 설치함으로, 동적인 각도로 유입되는 빛과 파사드의 조화는, 변화하는 중정의 4계절의 모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울림마당, 운동시설, 휴게 및 독서실 등의 디테일한 배 려공간들도 기숙사 사용자들의 감성적인 부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 였다.

최선을 다한 공간작업이었지만, 여기까지가 건축사의 몫이고, 이제 이 '공생 관(共生館)'을 정말 '아름다운 공생(共生)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사용자의 몫일 것이다.

Canon Korea Business Solution is co-founded by Lotte group and Cannon Group, Its major product is office machine. This corporate culture is "The revolution of working one's way comes from well-respected ones" and their heartful effort to practice its thoughts speaks far louder than words to us. This dormitory construction starts from extension of this thou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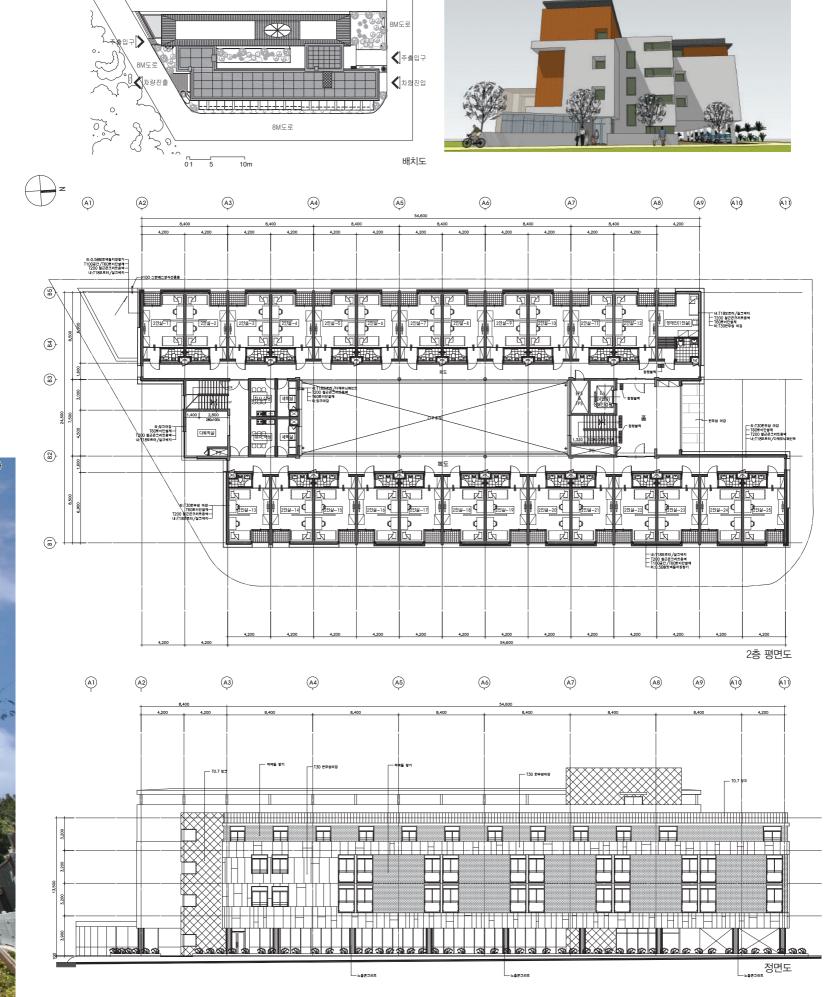
This dormitory name is "Living Together House", so we focus design on warm and beautiful picture of living together. Its main issues are emerging from monotonous customary dormitory design and coping with dreary residential life from the city.

We designed disconnected shape images horizontally to massive building size and structured circular pilotis to give lightened shape feeling. Exterior finishing materials are chosen with light ocher brick to make warm environment and basalt exterior walls at gate gives strong and sturdy images. Unlike other dark and dull customary hallway, this hallway has big windows surrounding sky garden. Therefore, it meets harmony of light and facade commanding beautiful 4 seasons view of courtyard, Additionally, concerned space such as sports ground, sports facilities, restroom, and library will effect positive energy to users,

We have made big effort to build "Living Together House", but we know that is our responsibility, so far. To be real "Living Together House", we believe that is user's respon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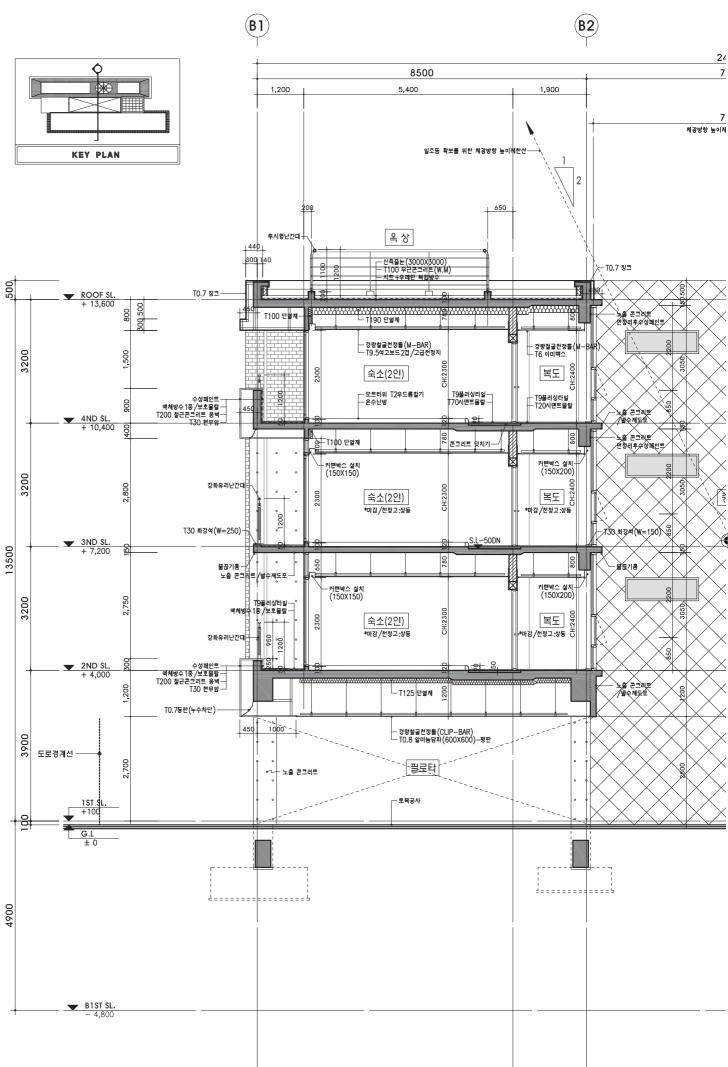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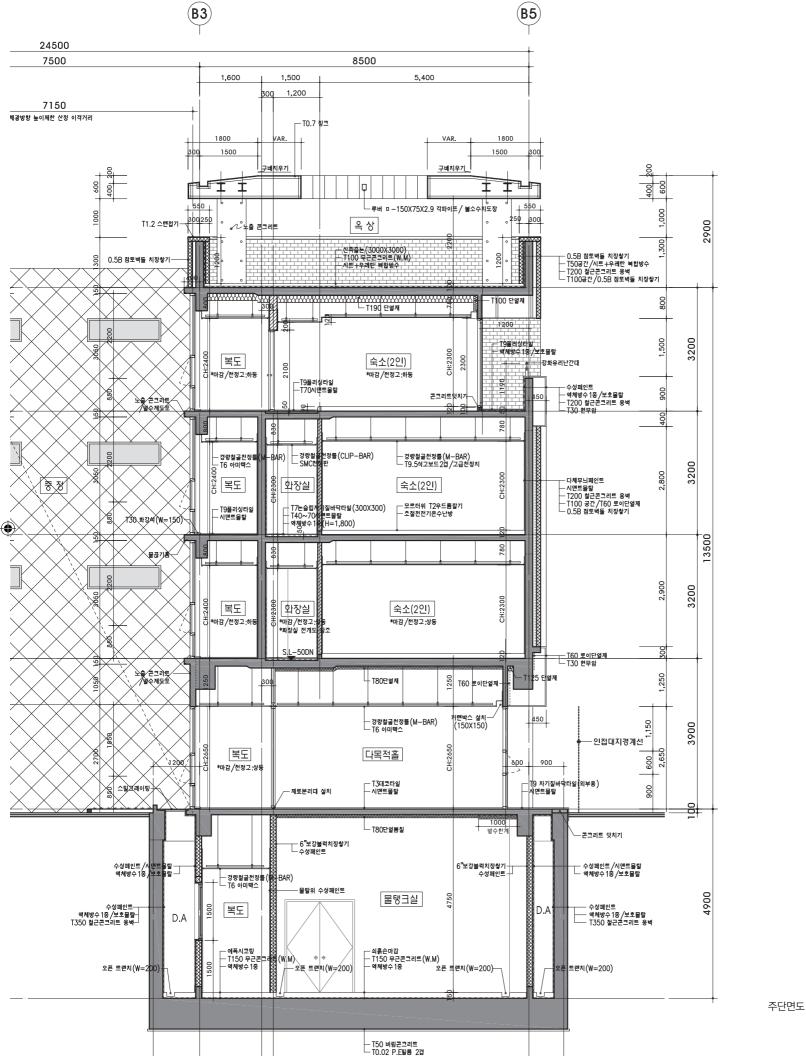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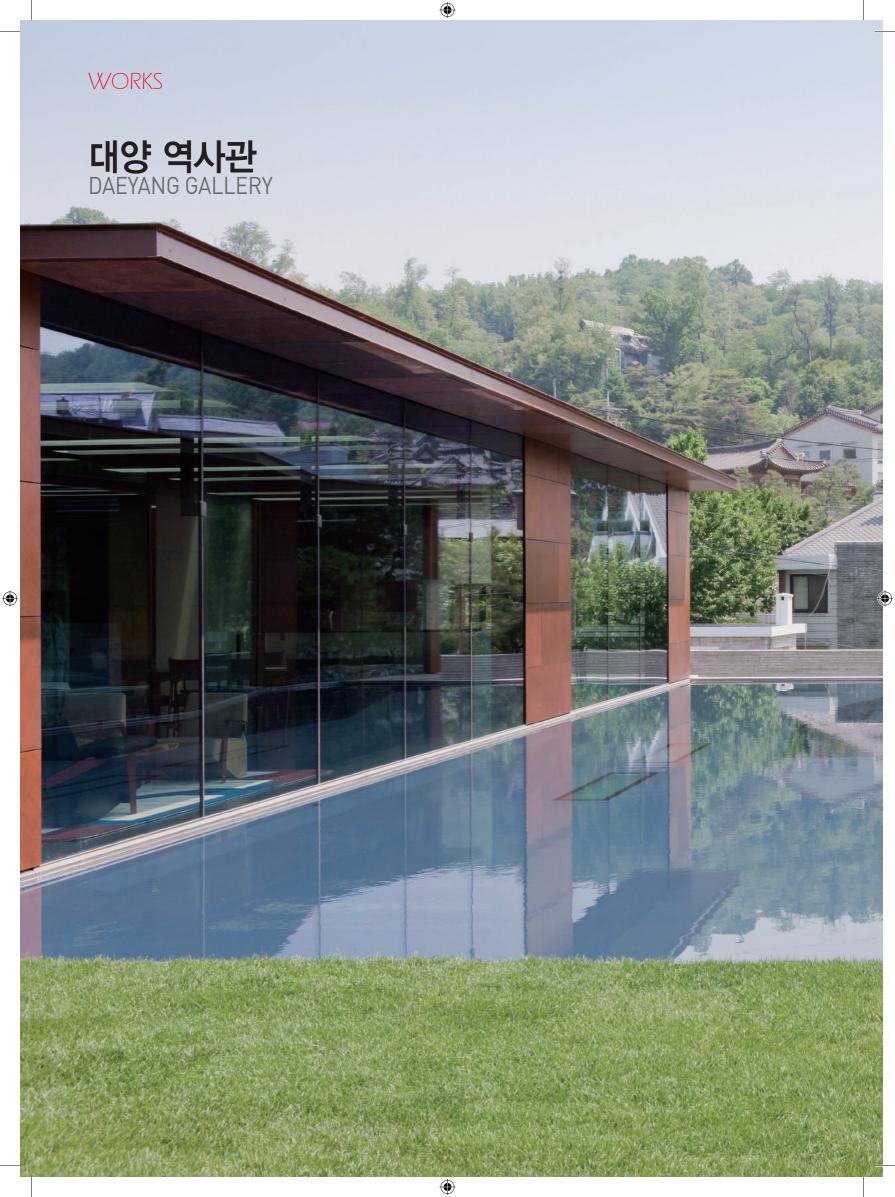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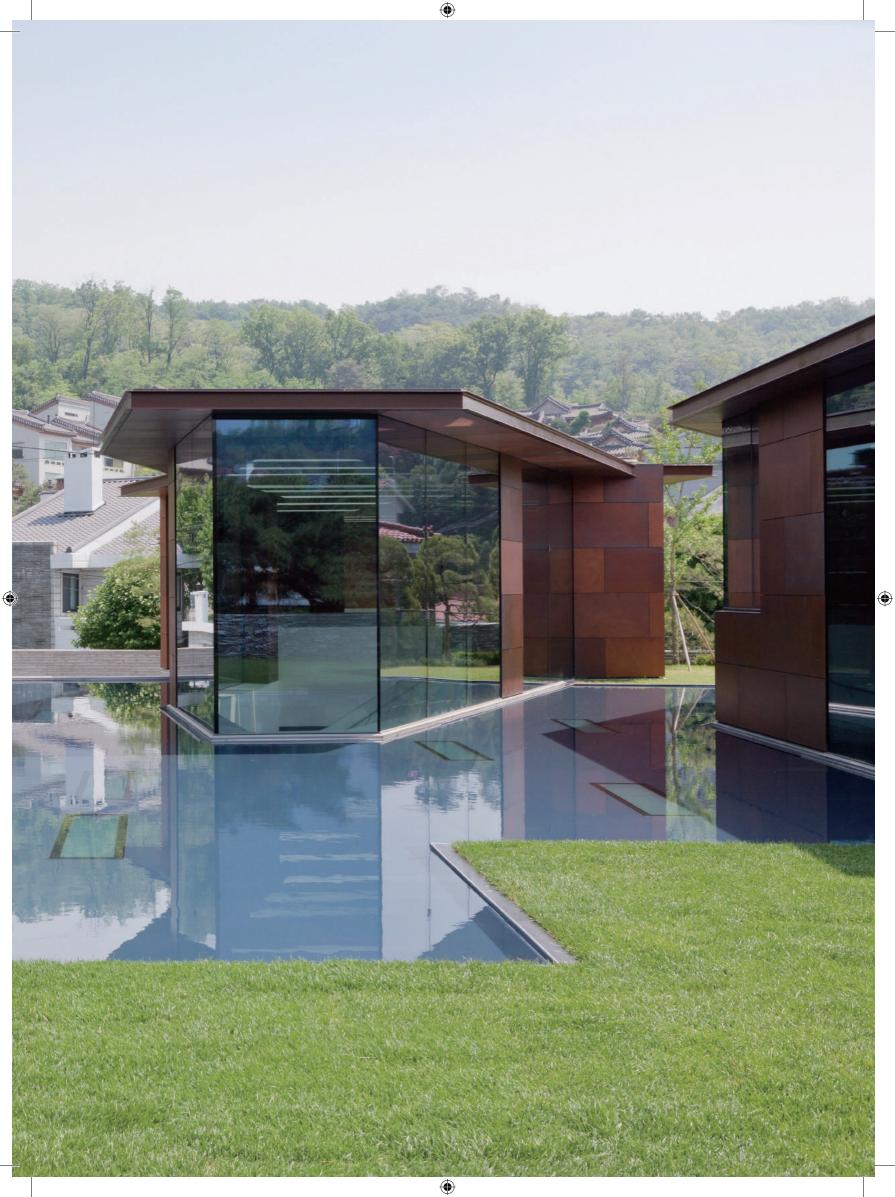




2012 KOREAN ARCHITECTS 051







WORKS

대양 역사관

건축주 | 대양상선 주식회사

설계자 | 이인호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이래건축

• 설계팀 : 정민희, 김형일, 오동영, 정신애, 조남규(이래건축) Steven holl Architects

Jongseo Lee, Marcus Carter, Rashid Satti Francesco Bartolozzi, Fiorenza Matteoni Dimitra Tsachrelia, Nick Gelpi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SQ엔지니어링(주)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대화기술사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주)노스타엔지니어링

시공사 | 제효 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3-32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1,760.87㎡

건축면적(Building Area) | 382.11㎡

연면적(Gross Floor Area) | 994.3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1.70%

용적률(Floor Area Ratio) | 21.70%

규모(Building Scope) | B1-1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 T3 Copper Patina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8. 10 ~ 2009. 09

공사기간 | 2009. 12 ~ 2011. 11

Architect | Lee, In-ho General Constractor | Jehyo

Location | 13-32, Seongbuk-dong, Seongbuk-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Q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 | Buksung HVAC+R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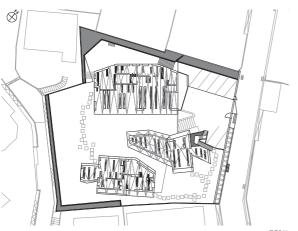
Lighting Consultant | L'Observatoire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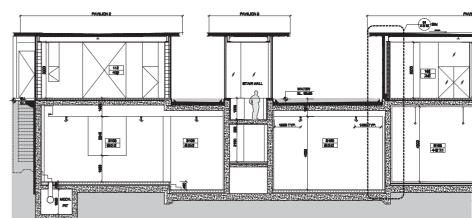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 T3 Copper patina

Design period | 2008. 10 ~ 2009. 09

Construction period | 2009. 12 ~ 20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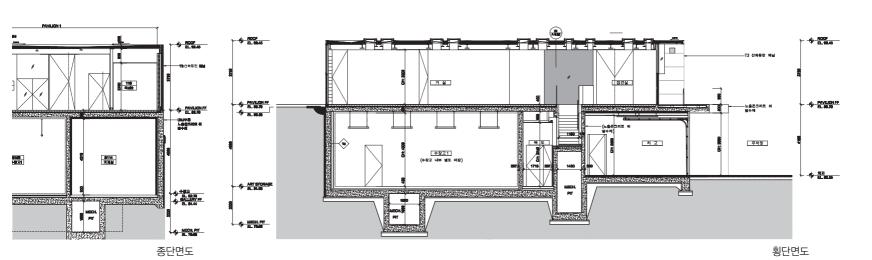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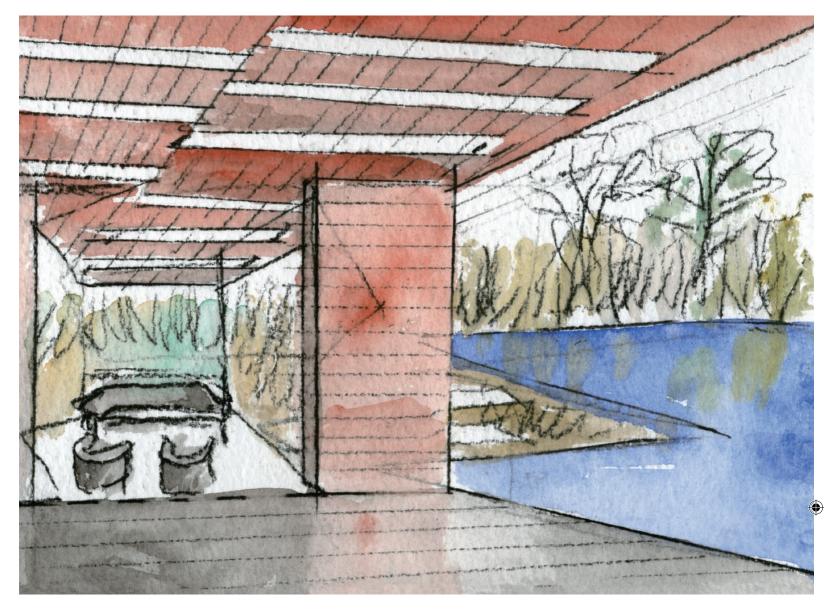






2012 KOREAN ARCHITECTS 055





건축은 건축주가 건축사와 함께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며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건축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과 건축사의 건축 철학이 접점을 찾아가는 동안 적지 않은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건물 설계에 창조적 동기가 부여될 수 있고 설계자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심도 있게 피드백 할 여유를 갖게 한다.

역사관이 위치한 지역은 성북동의 나지막한 곳으로서 아직 많은 집들이 1960~80년대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도로경계의 담장은 대지경계에서 후퇴하여 축조되었고 그 사이에 조성된 조경과 대나무를 이용한 노출콘크리트의 수 평적 대나무 무늬, 그리고 부식(patina)된 동패널 대문의 조형성과 독특한 색채는 마을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Gallery 전면마당을 에두르며 병치된 노출콘크리트 벽과 담장의 수직 수평선들이 서로 대립하며 조화를 이룬다. 크기와 각도가 다른 벽들은 여러 켜를 형성하고, 켜들로 생성된 크고 작은 사이 공간은 사람들을 상부정원으로 자연스럽게 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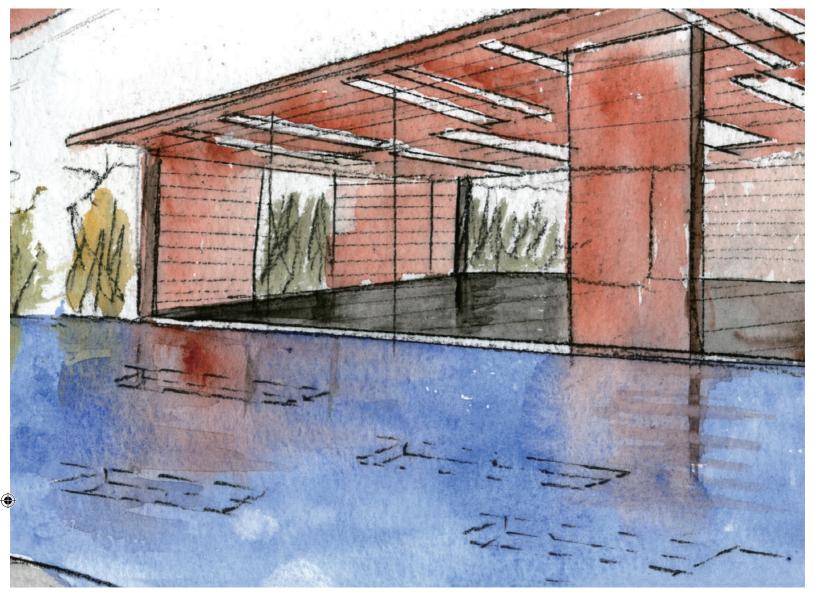
주거 용도의 3개 Pavilion은 reflecting pond를 중심으로 채나눔이 되고 각각의 열린 공간들은 대형 창들을 통하여 서로 융합된다. Reflecting pond는 역사관 전체에 물리적 정신적 구심으로 건물과 풍경 그리고 하늘이 물에 스며들고 빛 과 바람의 반응에 의한 파장이 소리 없는 음악의 선율로 느껴진다. 자연의 풍광 이 스며드는 1층 정원에서의 정감은 사뭇 한옥의 채취가 있는 마당의 정서와 같은 느낌이다. 빛과 그림자, 물과 바람에 의해 감지되는 현상들은 시간의 변화와 공간의 전개에 따라 체험자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지상의 외장은 3mm 두께의 부식(patina)된 동패널로서 지하층 외벽인 대나무 무늬 노출콘크리트와는 색상, 질감, pattern이 극명히 대비되는 재료이자 모두 시간성을 가진 재료들이다. Open joint로 분리된 수백개의 다양한 크기의 패널들은 제각각 점차 암갈색으로 변색되어 세월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건물의 공간구성에 관한 program 완성을 위하여 두 건축사사무실은 지속적으로 협의 하였고 건물 전체의 구조계획, 재료선정, 기계설비, 기술적 detail 작업은 이래건축이 주도하였다.

Pavilion의 벽과 천정 내장재는 청을 통하여 중첩되는 외장패널과의 일체감을 위하여 동패널과 유사한 색상의 목재가 사용되었다. 자연 상태의 색채와 무늬를 간직한 까브르바 판재는 외장 패널과 같이 작은 파편들의 미세한 색과 무늬의 변화에 의해 한옥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공감하게 해준다. 단순화된 디테일은 천창과 창으로 인입되는 빛과 그것에 의해 조합되는 그림자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디테일의 추상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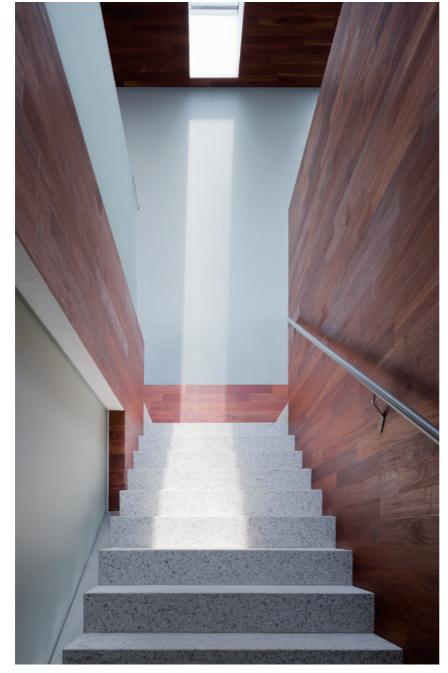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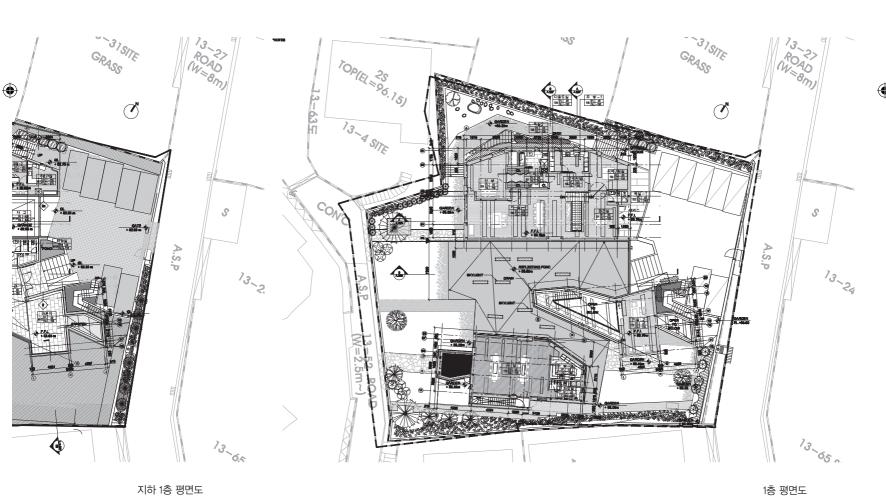


•









시아 15 당근도



백양로교회 리노베이션 BAEKYANGRO PRESBYTERIAN CHURCH RENOVATION

건축주 | 백양로교회

설계자 | 강대화_KIRA | 건축사사무소 토탈

• 설계팀 : 김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주)민S&T 엔지니어링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동지종합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종건축설비설계사무소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토탈

시공사 | (주)대동아건설

대지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515-2

주요용도 | 종교집회장(교회)

대지면적(Site Area) | 1,36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813.54㎡

연면적(Gross Floor Area) | 3,770.8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2%

용적률(Floor Area Ratio) | 219.64%

규모(Building Scope) | B1-6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라임스톤, 징크, THK4알루미늄복합패널

설계기간 | 2010. 03 ~ 2010. 10

공사기간 | 2010. 10 ~ 2011. 03

사진(Photographer) | Yoon, Joon-hwan

Client | Baekyangro Presbyterian Church

Architect | Kang, Dae-hwa

Proiect team | Kim. Jin

General Constructor | DAEDONG-A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515-2, Danggam-dong, Busanjin-gu, Busan, Korea

Structural Engineer | MIN S&T ENGINEERING Co.Ltd.

Design period | 2010.03 ~ 2010.10

Construction period | 2010. 10 ~ 2011. 03



변경전 외관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공간의 부족함을 우선적으로 느끼는 곳은 통상 대예배 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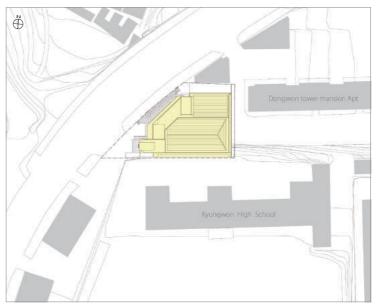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파악해보면 어느새 지역사회의 교육시설수준보다 낙후되어 있는 교육시설 개선이 더 시급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백양로교회도 교회확장에 대 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한 끝에 추진 한 것은 인근에 교육관(비전센타)을 먼저 신축한 후 교육시설을 옮기고, 현재의 교회당에서 비워진 교육공간들을 재구성하여 당초의 목적인 대예배실 확장과 부속공간들의 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20여년이 지난 기존교회건물은 폐쇄적인 공간구조, 유기적이지 못한 동선시스템, 현 대교회에서 요구되는 양육과 교제, 쉼의 공간들의 부족함과 시간이 흐른 만큼의 재료 가 갖는 권위나 친밀함을 외관에서 찾기 어려웠다. 건물의 개보수라고 말하는 리노베 이션(Renovation)이 '노후 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만 본래의 기능 외에도 시대적, 사회적인 환경변화로 더욱 더 복합적인 현대교회 고유 의 본질의 회복이나 개선이라고 하는 보다 확대된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근래까지 교회가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나 세상과의 구별함을 이루기 위해 외부와 다소 폐쇄적이었던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전파를 위해 지역 을 향해 열리고 이웃과 소통하기를 지향하고 있다. 밝고 투명하게 드러내어 건전한 공 동체로 초대하는 상징성이 현대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된 것이다.

가로에 근접되는 1, 2층 부분은 개보수공사의 부담이 되는 한이 있어도 투명하게 열어 내부기능과 조합시키며, 외장재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천연석재(라임스톤)를 선택한다.

기존의 다소 어설픈 개구부에, 내부기능에 필요한 개구부를 적절히 추가 배치하여 만 들어 지는 불규칙한 개구부들은 자연스런 리듬이 된다. 외부공간과 직접 만나는 1층은 새가족실과 카페, 식당 등으로 구성하여 풍요로운 교제와 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탈 바꿈한다. 존재하는 곳에 기능과 미학이 다시 만나고 절제와 균형을 통해 회복을 이루 는 것은 또 다른 건축적 생명이 연장되는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의 구현이다. 固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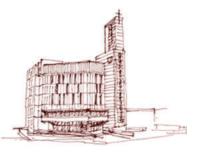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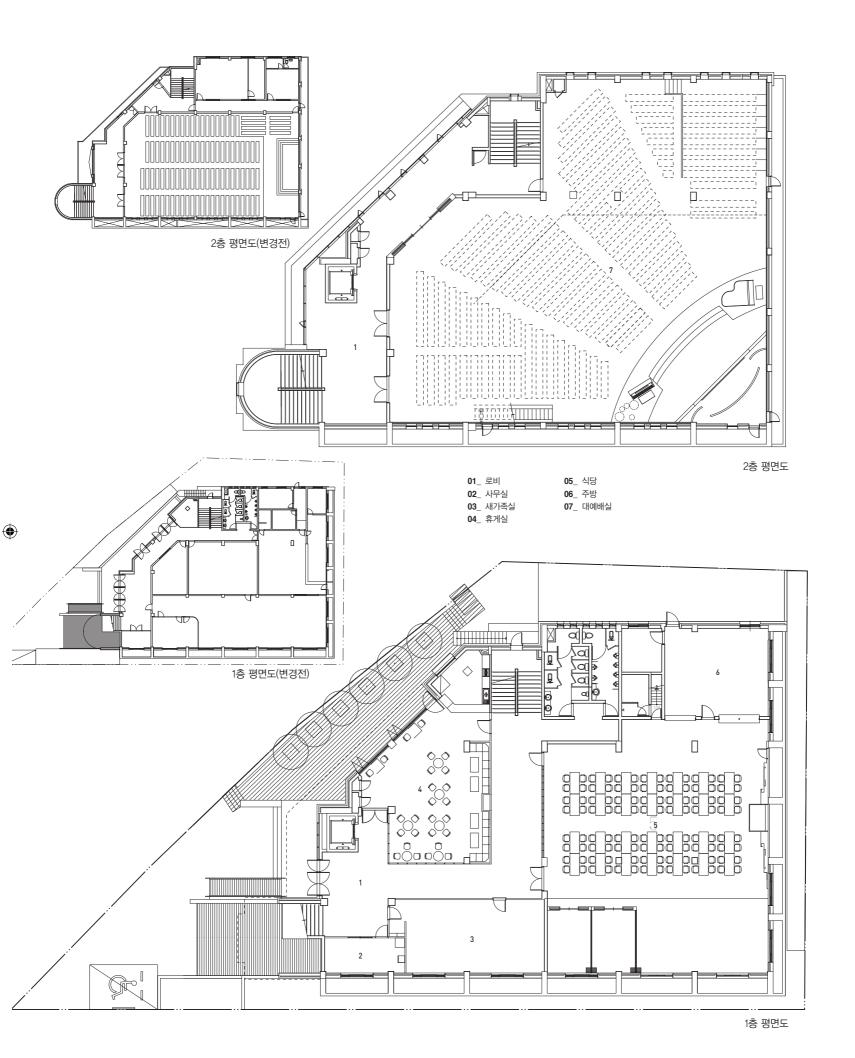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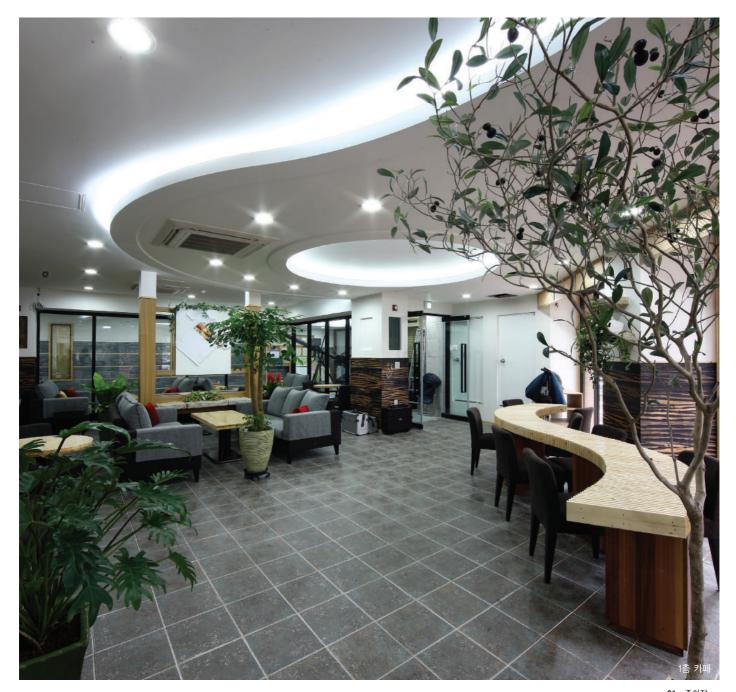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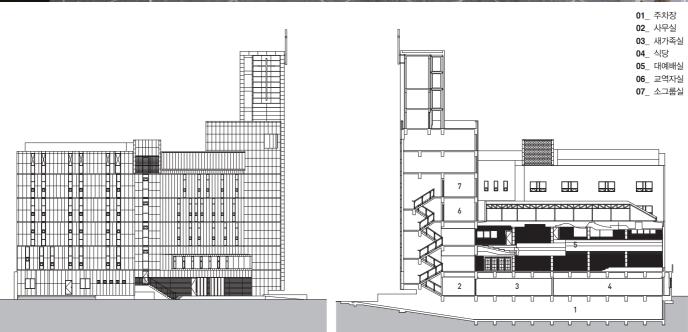




2012 KOREAN ARCHITECTS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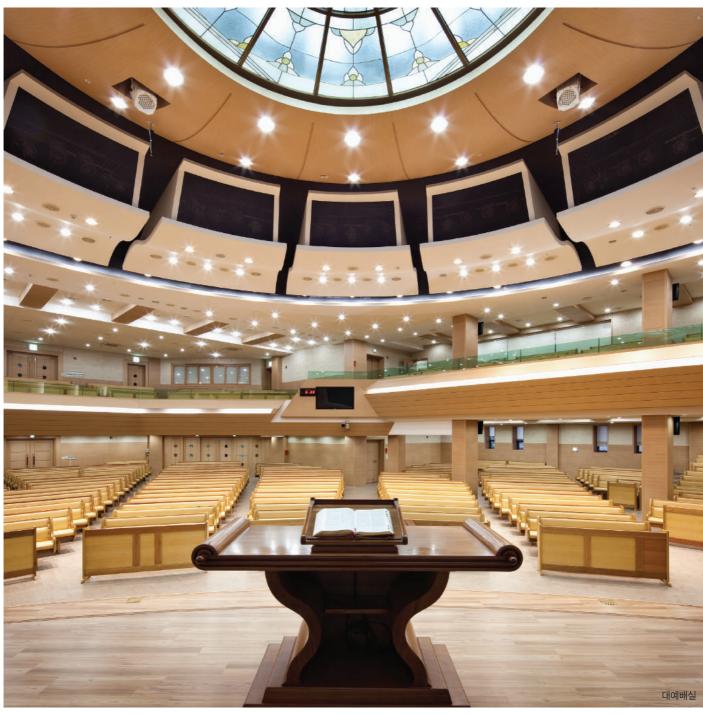




횡단면도

좌측면도











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_당선작

NOWAN WELFARE CENTER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발주자 : 서울특별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설계자 : 윤상국, KIRA | (주)관 건축사사무소 설계 : 박종혁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빈혜진, 김호영, 김효정, 박길선, 신현수

전문기술협력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성도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삼우MEC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상계동771)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복지시설대지면적6,073㎡건축면적2,494.41㎡연 면 적8,721.43㎡건 폐율41.07%용 적률104.69%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4층

주요마감 슬레이트석, 폴리카보네이트, 압축성형목재패널

공간별 계획의 주안점

- 주출입구: 필로티 공간, 점자안내판, 고원식 횡단보도
 - 주 출입구를 필로티 공간으로 계획하여, 전면에 보다 넓은 광장을 제공
 - 우천시 비를 피할수 있는 공간과 점자안내판 설치로 건물 이용의 편의성 제공
 - 보도를 연장하여 계획 대지내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물로의 보행 접근을 유도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한 주차계획
- 복도 및 계단실 복도 손스침 마감재, 알코브 공간
 - 출입문의 위치를 조정하고 복도벽체 마감의 변화로 실내 변화 유도 ⇒ 위치파악이 가능한 벽면구성
- 문의 개폐시 안전을 고려해 도어 스토퍼를 설치하고, 복도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알코브 공간 설치
- 복도 끝에 창설치 ⇒ 빛으로 방향성을 인지
- 돌음 계단은 전 층 계단수를 동일하게 계획
- 계단 핸드레일은 30cm 이상 연장하여 안전한 이동이 되도록 고려
-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선큰, 자연환기 및 채광
 - 지하 집단 활동실 및 식당의 채광, 환기를 고려해 선큰을 설치 ⇒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각 실 자연환기 및 채광을 고려한 창 개구부를 설치
- 전층 재난시 구인공간 발코니 계획
 - 유사시 재난에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필요 공간인 발코니를 전층 계획
- 조명 현휘방지
 - 로비 : 급격한 조도 차이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 복도 조명 : 창으로 갈수록 밝게하여 빛 환경의 점진적으로 변화조성 📋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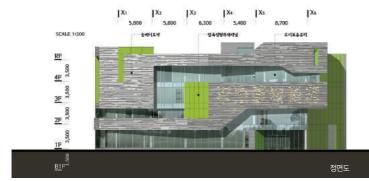




















배면도



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_ 우수작

NOWAN WELFARE CENTER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발주자: 서울특별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설계자 : 유영모, KIRA | (주)건축사사무소 유앤피 설계팀 : 김민수, 서영수, 김혜정, 안강일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내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복지시설

대지면적 6.073.20m²

건축면적 778.20m²

연 면 적 2,783.29㎡

건 폐 율 44.98%

용 적 률106.80%구조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4층

주요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목재루버, 로이복층유리

기본계획방향

-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우 및 그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및 지역사회의 중심 복지 공간을 제안한다.
- 중랑천과 마들공원을 잇는 복지공간, 대지를 열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자연이 머문 풍경을 바라 보고자 한다.

디자인 컨셉

- NATURE FLOW : 자연의 흐름을 끌어들인 '안락한 쉼터'
- 자연이 만들어낸 흐름이 변화하는 도시의 흐름과 만나 생기는 새로운 공간
- COMMUNITY FLOW: 소통과 교류를 통한 '문화의 장소'
 - 타인이 아닌 이웃과 소통하며 향유하는 장소
- WELFARE FLOW : 감성과 자극을 통한 '치유의 공간'
- 서로 의지하며 자라나는 새싹들 처럼 상생하는 복지의 장소

배치 및 평면계획

- 도시와 자연 그리고 사람과의 연계를 위한 열린 배치를 지향
- 주변 접근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일상의 장소로서 도시와 문화를 느끼는 즐거운 장소로 계회
- 외부공간은 내부로의 접근공간으로서 휴식과 친목이 이루어지고, 자연과의 접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쉼터 공간이 되도록 오감(玉感, FIVE SENSES)을 고려하여 계획 箇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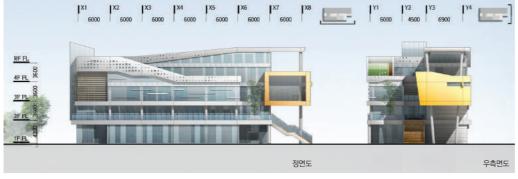
























충주 남부 노인복지관 및 당선적

CHUNGJU NAMBU WELFARE CENTER

발주자 : 충주시

설계자 : 김창식, KIRA | 우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황기숙, 유명희, 김태섭, 이광섭, 김바울, 김미은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이우진(황두구조)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미래 이, 앤, 지

- 기계설비분야 : (주)미래 이, 앤, 지

- 소방설비 : (주)미래 이, 앤, 지

- 토 목 : (주) 탑엔지니어링

대지위치 충주시 지현동 1088-44번지 외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대지면적 4.418.0m²

건축면적 1.008.91㎡

연면적 3.083.18㎡

건 폐 율 44.76%

용 적 률 72.3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2층

주요마감 징크패널, 고밀도목재 압축패널

유구한 역사와 전통, 찬란한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를 지탱하고,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쉼터를 건축함에 있어, 교육의 장, 건강의 장, 치유와 사교의 장,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 상 맑은 물이 샘솟고, 생기가 넘치는 옹달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지분석과 배치계획

설계대지는 도로 및 주변대지와 고저차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측은 충주와 함께해 온 계명산과 남산이 조망되어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서측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폐쇄되고 낙후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설계는 북측대지에 교육, 문화, 사교 등 정적인 영역의 건물배치 남측대지는 야외운동을 할 수 있는 동적인 영역배치를 하였으며, 가로축에 주 건축물을 배치하고, 서측의 열악한 경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세로축에 부 건축물을 배치했다.

대지축을 반영 건물의 터를 잡았으며, 동측과 남측은 비워 풍경마당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 남서측에 비움마루와 실버까페를 설계하여, 풍경마당을 통해 계명산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 및 입면 계획

평면은 사용자의 편의와 효율적 관리를 고려하여 명쾌한 기능분리를 했다. 1층은 사용자 500명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식당을 배치, 노인들의 사용에 편리함을 도모했다. 실버까페와 비움마루를 두어 조망권 확보와 열린공간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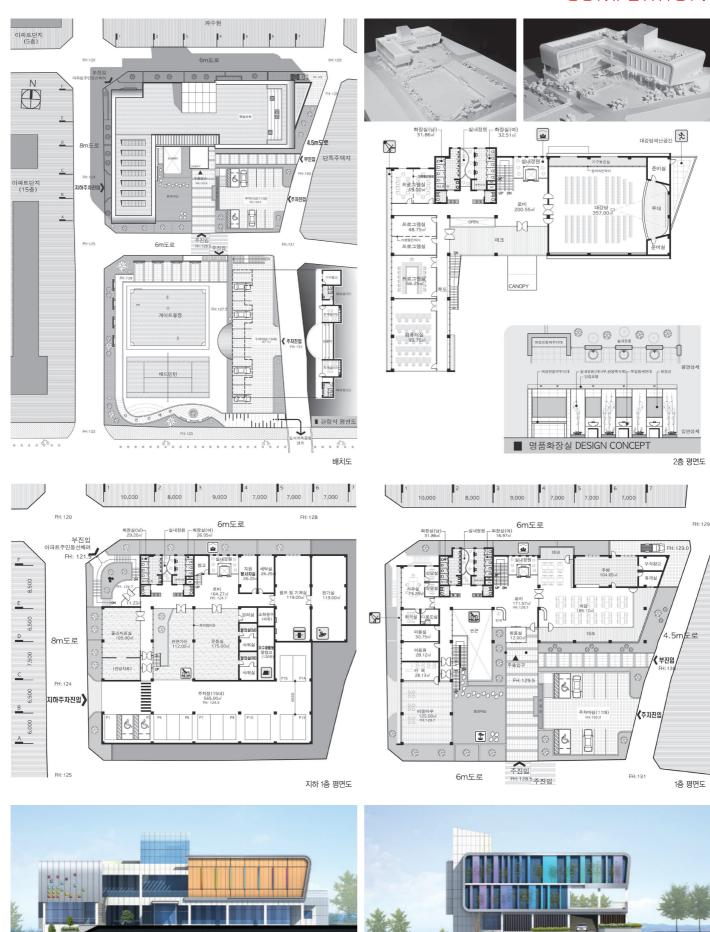
2층은 프로그램실과 대강당을 배치하고, 전망 좋은 곳에 휴게데크를 설치했다. 箇





igoplus

COMPETITION





좌측면도





충주 남부 노인복지관 _ 우수작

CHUNGJU NAMBU WELFARE CENTER

발주자 : 충주시

설계자: 최영배, KIRA | 한담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박태식, 김인덕

대지위치 충주시 지현동 1800-44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대지면적 4,418㎡
건축면적 918.23㎡
연면적 2,875.02㎡
건폐율 40.48%
용적률 126.74%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2층

주요마감 친환경 합성목재,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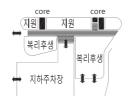
풍정루

건축물 자체가 풍경이 되는 정이 흐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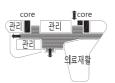
- 풍 전통건축의 처마선과 창살의 모습 등을 강조하여… 새로운 그러나 낯설지 않은 풍경을 제안한다.
- 정 단순히 노인을 위한 공간에서 그 의미를 확대하여, 노인과 아이 그리고 청년이 함께 소통하는 어울림의 장소를 제공한다.
- 루 이곳에 서면, 원경에 펼쳐진 자연을 만나고 따스한 햇살을 경험할 수 있다. 崮

평면계획 개념

• **지하 1층 계획** Zoning & Circulation 복리후생시설 + 지원시설



• 지상 1층 계획 Zoning & Circulation 의료재활시설 + 운영관리시설



• 지상 2층 계획

Zoning & Circulation 사회교육시설







COMPETITION

__ 대지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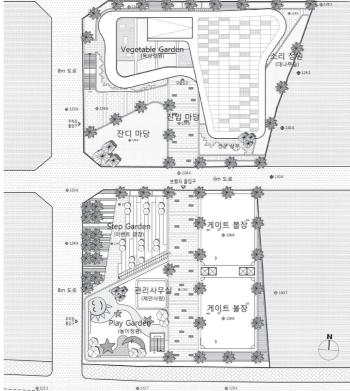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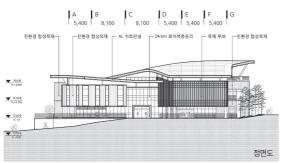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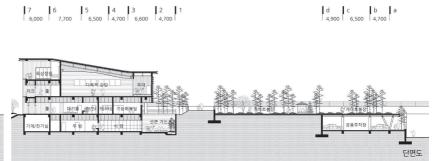


배치도











충주 남부 노인복지관 _/\

CHUNGJU NAMBU WELFARE CENTER

발주자 : 충주시

설계자: 김홍식, KIRA | 삼익 건축사사무소 전상국, KIRA | 대원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김중완, 강선미

대지위치 충주시 지현동 1088-44번지 외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대지면적 4,418.0㎡ 건축면적 1,008.91㎡ 연면 적 3,122,39㎡ 건폐율 48.26% 용적률 145.23%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2층

주요마감 스타코 고운마감, 24mm 로이 복층 유리

본 설계는 건축물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건축환경에 쾌적함을 부여하였으며 건물을 35m 주도에 접한 대지에 배치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가로경관형성 및 건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

또한 도로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각층별 출입구를 둠으로써 접근 및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가운데 중정을 중심으로 각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임과 동시에 아늑한 휴 게공간을 형성하고 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처마를 건축물의 주 포인트로 하여 일조, 일사량을 조절하여 냉난방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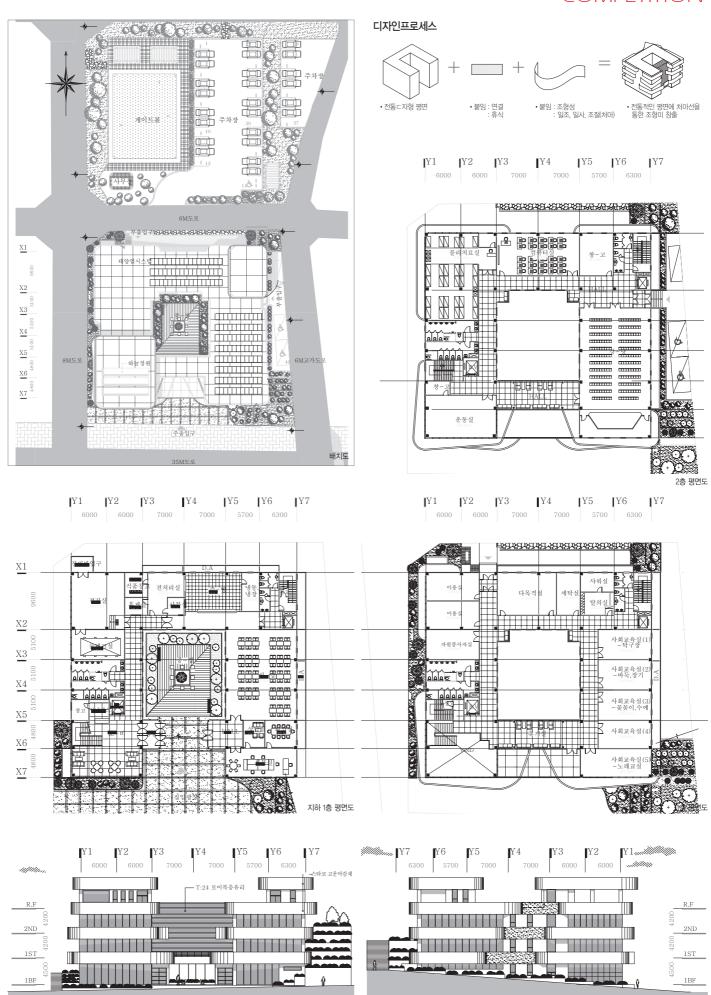








COMPETITION



서측면도

남측면도



하빈면민 복지회관 _당선작

HIBINMYEONMIN WELFARE CENTER

발주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설계자: 전해영, KIRA | (주)화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권순철, 박종원, 박기범, 강정구, 강동영, 손보경

- 구조분야 : 박재동 (동양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임석봉 (범주) - 기계설비분야 : 김창현 (엠텍이앤씨) - 토목분야 : 윤종현 (세진이앤씨) - 조경분야 : 이월순 (일월조경)

대지위치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943-2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개발제한구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2.185.0m² 건축면적 553.0m² 연 면 적 1.392.2m² 건 폐 율 25.30%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는 하빈면 소재지 남단부에 위치하며, 서측으로는 주거지역이, 동측으로는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서측 8m도로를 통해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가능하다. 도시흐름과 주변자연을 더불어 고 려하여 하빈면 지역주민들의 정보·문화의 장을 수행하는 자연속의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

Flow - 자연과 도시, 사람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외부공간의 조성

남측과 동측의 자연광과 조망을 고려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맞이마당을 주 진입로에 계획하 여 인지성을 높인다. 맞이마당에서 연결된 2층의 쌈지마당은 자연의 흐름을 대지내부로 유입하고 내 외부공간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외부에 독립된 노인쉼터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쉼터 남측의 툇마루를 형성하여 전통적인 공간을 재현한다.

Link -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 매스를 분리시키고, 외부와 내부의 흐름을 통해 채광 및 통풍을 해결한다. 진 입구와 내부기능을 연계한 배치계획으로 맞이마당과 주출입구, 로비, 부출입구, 마을공동주차장의 연 속적인 동선의 흐름을 야기한다. 3층의 작은 도서관은 Open형 공간으로 제안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도 모하며, 작은 도서관과 연결된 휴게발코니와 하늘독서마당은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사색의 공간을 제 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도록 수평조닝을 설정하여 소음을 완화시키고, 공간분할로 형성된 마당에 녹지공간을 삽입하여 에너지, 환경, 녹화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한다.

Community - 만남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 복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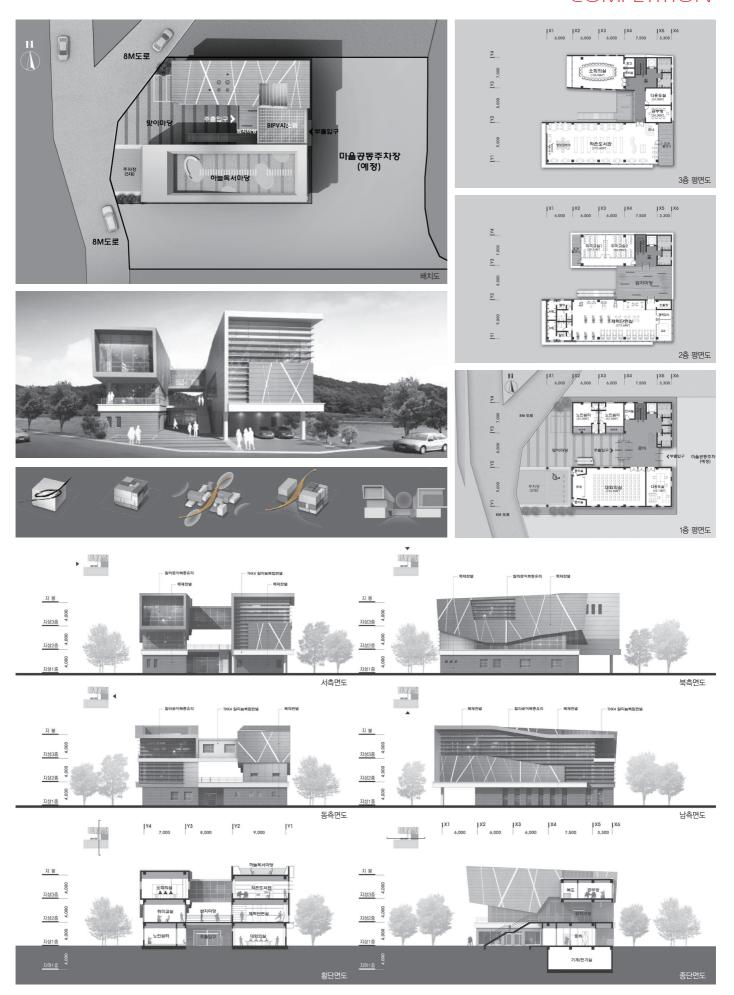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커뮤니티시설로서 하빈면사무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휴식, 체험, 교 육, 이벤트, 전시 등 적극적인 문화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취미교실의 가변적 공 간은 실의 사용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공간으로 전이공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







COMPETITION





하빈면민 복지회관 _ 우수작

HIBINMYEONMIN WELFARE CENTER

발주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설계자: 박태환, KIRA | 주원 건축사사무소 김태윤, KIRA | 에이엠 건축사사무소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진선구조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한국전기기계설비분야 : 서진설비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943-2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926㎡ 건축면적 543.48㎡ 연면적 1,423.81㎡ 건폐율 58.69% 용적률 140.17%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3층

SADDLE THE WIND 바람에 실려…

"채워지기 위한 여유공간이 없다면 溪谷은 말라버릴 것이며, 성장하기 위한 여유가 없다면 창조는 기능을 정지할 것이다."(건축공간과 노자사상 中)

비움과 관계설정

수평적이며 동시에 수직적인 공간의 비움(Void)은 내부공간의 다양한 장소에서 자연과 소통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활력을 주는 중심키워드로 작용한다.

시퀀스(Sequence)를 가지는 일련의 전개방식은 행위자에게 끊임 없는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며, 의도 된 건축적 장치에 의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간다.

빛과 그림자의 유희

비워진 공간사이로 침투되는 자연의 빛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빛과 그림자로 걸러지며, 재료의 물성을 다양한 각도와 색채로 투과시킨다.

바람에 실려

선학골에서 불어오는 동남풍은 비워진 개방형 단면구조를 통해 끊임 없이 순환하여 내부공간으로 깊 게 전달된다

쉬어가는 그늘과 바람에 실려오는 자연의 香氣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한 켠을 잠시 채워주는 삶의 여유로움이 될 것이다. 📋







(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corrective order of an illegal building when the legal owner is different from the real owner?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본문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와 실제 건축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2010.10.14. 선고 2010두13340 판결)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A가 건축 중이던 건물 및 대지를 B에게 양도 하였으나 B가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자, 행정청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A에게 시정명 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A는 자신은 이미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이었다.

참고로 위 사건의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 당시 A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A는 피고의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이 A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A가 승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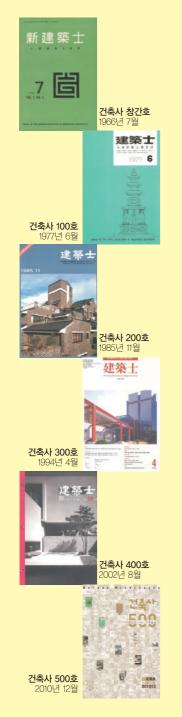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갖는 A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시정명령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A가 패소한 것이다.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이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A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상 대방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행정청의 A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固**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3회 시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7~2008년 정부법무공단 설립준비단, 2010년 법무부 국기송무정 보시스템 개선사업 기술 평가위원,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기획홍보팀장이다.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건축史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65년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1965년 5월 15일 제1호 건축사가 탄생했다. 1965년 10월 1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되다. 1966년 7월 제1호 「建築士」지가 발간되었다. 2010년 12월 「建築士」지는 500호를 발간하였다. 2012년 7월 현재 519호가 발간되었다.

건축사지는 국내유일의 전통 건축잡지입니다. 건축사지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건축史에 건축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참여는 더 나은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기고내용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건축물 이미지 2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묘(200자 원고지 5매 내외). 기본도면(배치, 단면, 평면/PDF 제출)〉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제출패널을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 (혹은 투시도,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200자 원고지 5매 내외)〉
기고 등	건축계 현안에 대한 소감, 건축여행(이상 A4 5매 이내) / 세미나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 ~ 2매)
작품노트 등	준공, 계획, 미실현된 작품 중 가장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4매 이내,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제출)

보내는 곳

• 웹하드: www.webhard.co.kr(ID: kiraweb, PW: 5712) • FAX 02-3415-6850 • 이메일: news1@kira.or.kr



우리의 건축사를 위하여!

근대건축사를 연재하며

Introduction to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교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말 속에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낸 적이 없는 한국건축사, 근대건축사 그리고 한옥과 같은 일상화된 건축용어 속에 개항 이후 우리의 건축이 어떻게 지내왔고, 우리의 건축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이 땅의 건축이야기에서 주인은 당연히 우리 건축일 터인데, 굳이 '건축사(建築史)'라는 교과목 앞에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 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국어'라고 하지 '한국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건축사'라고 부르 지 않고 '한국건축사'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우리는 언 제부터 '한국건축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혹시 '한국 건축사'가 일제강점 하에 일인들에 의해 정의되었던 '조선건축사' 를 단순히 번역하는 오류의 결과가 아닐까?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건축은 '조선건축'으로 불렸다. 일인들에 의해… 이때 '조선건축'에 사용된 '조선'은 '국가 이름으로서의 조선'이 아닌 '지역 이름으로서의 조선'이었다. 일본은 식민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이 땅의 건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건축을 '조선건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이 땅의 건축역사는 '조선건축사'라 불렸다.

이 땅의 건축이 '조선건축'이라고 불리기 전에 아주 잠깐 '한국 건축'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었다. 이 땅의 건축을 처음 조사했던 동경대학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1902년 한반도 남부의 오





래된 건축물을 조사했고, 그 결과가 '한국건축조사보고'(1904)로 발행된 것이다. 이후 세키노는 다섯 차례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모아 1932년에 '조선미술사'를 저술했다. 1904년의 조사보고에서 세키노가 '한국건축'이라는 표 현을 사용한 것은 일인의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건축을 조 사한 보고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 합된 이후에 작성된 저술에서 그는 '한국' 대신에 '조선'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였다. 일본이 굳이 '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일인들 이 사용한 '조선'이라는 단어는 일본을 구성하는 여러 지역의 하 나라는 의미로 사용된 지역 이름이었다.

세키노에 이어서 우리건축을 연구한 사람이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서 교수를 지냈던 후지시마 가이지로오(藤島亥治郎)다 그는 1930년 일본건축학회지인 '건축잡지'에 조선건축사론(1930) 을 게재한 바 있고, 이후 식민지 조선의 건축을 지속적으로 연구 했다. 이밖에 조선총독부의 의뢰로 곤와지로(今和次郎)가 한반도 의 살림집을 조사한 후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1924)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세키노와 후지시마 그리고 곤와지로의 연구조사활 동과는 또 다른 축으로 건축 연구의 맥이 형성되었다. 1933년 8 월 8일 제정된 조선총독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 령'에 따라 건축문화재가 수리되기 시작하였는데, 오가와 케이키 치(小川敬吉)를 비롯하여 스기야마 신조(杉山信三). 요네다 미요 치(米田美代治) 등 총독부 건축기사에 의해 많은 문화재가 수리 되었다. 이중에서 오가와는 많은 현장기록과 도면 그리고 사진을 남겼으며, 요네다는 '조선상대건축의 연구'(1944)를, 스기야마의 경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고려말 조선초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1950)를 발표하였다.

우리 손에 의한 우리 건축 연구가 시작도 못하는 사이에 일인에 의한 우리 건축 연구는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일인들이 구축한 선행연구의 틀은 1970년대 들어 본격화되는 우리 손에 의한 우리 건축 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개척하기 시작한 건축사의 앞에 국가 명을 접두어로 붙인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양식'이라 부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한국건축사'라는 과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축사의 대척점에 있는 건축사과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축사의 대척점에는 서양건축사와 (서양)근대건축사가 있다.

우리의 '건축' 앞에 나라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카'와 '필카'라는 신조어를 비교해 보자. 디지털카메라가 발명되기 전까지 카메라는 당연히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였기에, 우리는 '필름카메라'를 '카메라'라고 불렀지 '필름카메라' 또는 '필카'라고 부르지 않았다. 디지

털카메라가 발명된 초기만 하더라도 '카메라=필름카메라'였기 때 문에 우리는 필름카메라와 구별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디카 라 불렀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가 빠르게 카메라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필카'라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다. 필카는 필름카메라의 약어인데, 어느 덧 카메라=디지털카메라로 인식 되면서 필름카메라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필카라는 새 말이 필요 해진 것이다. 이는 한옥과 양옥의 관계와도 비슷하다. 우리가 전 통 주택을 '한옥'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옥'을 집의 표준으로 삼고 있고 소수자로 전락한 우리의 전통주택을 당대 집의 표준과 다른 특별한 주택으로 인식한 결과다. 따라서 '한국건축사'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 건축이 주인이 아닌 객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지 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 었다. 어느덧 우리 건축의 안방을 서양건축이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양건축을 몰아내고 우리의 전통 건축을 중심에 앉히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 위치는 물론 주인 의식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 실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이 문제를 심 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 땅의 주 인은 우리 건축이 아니라 서양 건축이라는 사실이 더욱 강화되었 다. 왜 우리의 건축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근대를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남의 손에 의해 시작된 우리 건축 역사 연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높이와 시선에 맞춰져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건축을 중심에 놓고 상대화시킨 '조선의 건축'을 우리는 '한국의 건축'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1960년대에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 논쟁'과 '국립종합 박물관 현상공모 논쟁'을 최초의 전통건축 논쟁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두 논쟁의 핵심에는 전통이 없었다. 전통으로 포장된 건축가의 창작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 논쟁의 경우는 후배 건축사(建築士)들의 우리 옛 건축에 대한 물리적 계승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컸다. 특히 부도덕한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우리의 옛 건축이 남용되면서 전통건축 형태의 재현에 대한 건축사(建築士)들의 비판의식은 더욱 공고해졌다. 자연스럽게 우리 건축의 양식적 가치는 건축사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로 인해 존재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건축양식의 자리를 대신했고, 건축에 관한 담론은 추상적으로 흐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한국건축사'는 온전하게 우리의 건축 역사 전반을 포 괄하고 있나? 답은 '아니오'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건축사는 조선시대까지 만을 다



루는 고건축역사였을 뿐이다. 개항 이후의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는 배운 바가 없다. 이로 인해 '한국건축사=고건축사'라는 이상 한 등식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등식은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 고 있다. '한국건축사=고건축'이라는 등식 속에는 우리의 근대건 축을 담지 못하는 '한국건축사'는 근대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 하여 그 생명이 다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문제 가 발생했을까? 이는 '근대건축'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배 경으로 한다. 이는 산업화없이 식민지배와 함께 근대사회에 진입 한 우리 근대의 속성 때문이다. 이 땅에서 근대건축은 일본에 의 해서 이식된 외래건축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우리의 건축 사 연구는 당연히 근대 이전의 건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대건축은 그 뿌리가 우리건축이 아닌 일본건축 또는 서양건축에 있다는 인식은 우리 자신을 근대건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한편. 고건축을 연 구한다는 것은 일본에 의해 훼철되고 평가 절하되었던 우리 건축 을 구원하여 역사에서 제 위치를 찾게 하는 일이라는 소명의식까 지 내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고건축에 대한 편애는 경제성장 기를 거치며 이 땅의 건축사들이 모델로 삼았던 서구의 모더니즘 건축이 보릿고개 탈출 이후를 채워주지 못하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렸던 한국건축의 정체성에 찾기로 이어졌다. 80년대 중 반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많은 건축인들이 마치 성지를 순례하듯 전통건축을 답사하기 시작했 고, 동시에 우리건축의 나아갈 바를 전통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 는 과도한 부담이 전통건축에 부과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양 식적으로 우리건축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근대건축이 설 자리 는 없었다. 오히려 르 꼬르뷔지에나 루이스 칸으로 대표되는 서 양 근대건축가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66년에 윤일주 교수에 의해 '한국양식건축80년사'라는 근대 건축 저서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우리 손에 의한 첫 번째 건축역 사 연구서(고건축 포함)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 한 것은 일인들에 의한 선행연구가 없는 근대건축 분야에서 나온 성과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자의 부재는 선각자의 길 을 더욱 외롭게 할 뿐이었다.

(

'한국건축사=고건축'이라면, 근대건축사는 당연히 서양의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근대건축을 업으로 하는 필자가 우리의 근대건축사를 가르치기 위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축사가 범했던 오류를 또 다시 반복해야만했다. 앞서 지적한우리 건축사 과목 앞에 나라 이름을 앞세우는 우를 이미 알고 있는 필자였지만, 이미 서양의 근대건축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근대건축사'가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건축사를 가르치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앞에는 또 다시 한국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야만 했다.

필자는 개항 이후의 우리 건축을 연구하고 있어. 개항 이전의

건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지만, 개항 이전의 건축을 연구하는 건축 역사학자와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는 관심 이 많다. 이는 우리의 근대건축과 건축역사 연구의 시작이 개항 이후에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의 관심사는 개항 이후의 건축과 건축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건축인에 의해 건축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이 생산되는 과정에 관계하는 사람들과 재료 그리고 기술에 관심이 많고, 생산된 건축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이 땅에서 소멸되어가는 가에 관심이 많다.

필자가 건축사 잡지를 통해 연재하고자 하는 글은 바로 이점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연재를 통해서 우리건축이 오늘과 같은 틀을 갖추게 된 지난 150여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분히성숙되지 않은 글이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내왔던 우리 건축의지금 모습에 대해 한번 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엮어가고자 한다. 圖

경기대 대학원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교수다.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후 대림산업 (주)에서 근무했으며 1990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다. 동대학원에서 한국 근대건축을 공부하고 「건축가 박동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건축가 김정수 작품집' 등의 저서가 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와 일본 동경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도코모모코리아 부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건축역사학회 이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서울시와 경기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OREAN ARCHITECTURE 2009, 2010, 2011」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도서 구매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축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건축도서를 발간하여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KOREAN ARCHITECTURE」시리즈,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등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TKOREAN ARCHITECTURE 20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u>출품</u>작 수록 면수: 376여쪽

4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시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10」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T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구입문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7) ※ 계좌번호: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소식

제8회 이사회

2012년도 제8회 이사회 회의가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사업계획 추진의 건과 건축사실무교육 과정개발 용역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건축사교육원회계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건축사연금제도 연구용역 승인의 건, 「2012 건축의 날」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추인의 건, 건축사실무교육 과정개발 용역의 건,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사업계획 추진의 건
- 각 지자체 및 교육청 발주 설계·감리용역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사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보낼 서신에 대해서는 회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함.
- 회원들의 행정소송관련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과목 등 세부사항은 차기 이 사회에 상정의결하기로 함.
- •제2호: 건축사실무교육 과정개발 용역의 건
-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 인함.
 - ▷ 제9조의2(기탁금)제4항 '4. 당선무효된 경우' ⇒ 삭제
 - ▶ 제14조(선거운동기간)제2항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항의 선거운 동기간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 제16조(선거운동 금지)
 - 제1항 '5.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 '5. 단체명의로~'
 - 제3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1명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식사류: 1만5천 원이하 2. 다과류: 5천 원이하 3. 음료: 2천 원이하
 ⇒ '1명당 3만 원이하 금액의 식사류(다과, 음료 포함)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 제16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항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 '심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무효를 결정한다.'
 - ▷ 제25조(당선확정) 제5항 '위원회는' ⇒ '위원장은'
 - ▷ 제26조(재선거) 현행대로
 - ▷ 제26조의2(당선무효) 삭제
- 임원선거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설화되는 만큼 위원장 및 위원 재선임 여부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건축사교육원회계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건축사연금제도 연구용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12 건축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건설의 날」 및 「건축의 날」의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은 주관 단체에서 추천 요청이 있기 전에 이사회에서 사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함.
- 제6호의안: 건축사실무교육 과정개발 용역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 운 영규정 제정의 건
- 이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 제16조(회계운영)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회의 승인 을 받는다.'
 - ▷ 제17조(승인)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운영규정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8호의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대한건축사협회 이규복 전임회장 별세. 지난 8월 22일 향년 85세로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 해온 원로 건축사로서 지난 1965년 신한건 축설계사무소를 개업 해 운영하며, 대한건축 사협회 서울지부장과이사 등을 거쳐 제8대 (75.10~77.10)와 제9대(77.10~78.3) 회장을 역임했다.

우리 협회 제8대, 제9대 회장을 역임한 이규복(前 신성 건축사사무소)전임회장이 지난 8월 22일 향년 85세로 별 세했다.

故 이규복 전임회장은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1회로 졸업 하고, 평생 동안 건축계에 몸담으며 작품 활동과 건축사 지난 8월 24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직원 및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지는 국립이천호국원이다.

▲기타사항

- 이사회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경과 및 조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임원 참가계획에 대해서는 참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 참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기로 함.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합동회의 (9월 4일)는 참여를 희망하는 임원에 한하여 참석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

제1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7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감리제도 개선의 건
- 시도건축사회 대부분이 설계감리분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제소위원회(감리)에서 검토한 건축법 개정 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 법제소위원회(감리)에 인천 및 경북건축사회 회장이 차기 회 의부터 위원으로 참석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회별 자격등록 분할 시행의 건
-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제3호: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지 선정의 건
- 인천 및 경북건축사회가 8월 이전까지 2014 대한민국건축사 대회 유치여부를 본협회로 전달하기로 하되, 만일 양쪽모두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울건축사회가 대회 유치를 신청 하기로 함.
- •제4호 : 시도건축사회장 건의사항의 건
-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시간 인정 등
 - ▷ 건축사법에 의한 교육을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토록 개선하는 부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국토부의 의견 도 부정적인 만큼, 우선 건설기술자 교육을 건축사법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기로 함.
- BIM 프로그램 활용방안 패밀리 구축
 - ▷ 현재 우수자재 인증업체에 BIM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남품토록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에 BIM이 구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기타사항

• 건축문화신문과 관련하여 시도에서 신문 내용 및 디자인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원하고 협회의 통일된 의견만 보도되도록 건의함.



■ 제3회 시도건축사회 회장 회의

제3회 시도건축사회 회장 회의가 지난 8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입법 의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며, 개정입법에 동의하는 시도회장 연명부를 본협회에 제출하기로 함.

▲기타사항

- ① 한국건축가협회가 추진중인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반대의견 제출 대응의 건
-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학회에서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본협회 회장이 FIKA회장단 회의(12.8.21일 예정)에 참석하 여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입법 취지 및 당위성 등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반대의견이 제 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에서도 해당 지역의 가협회 지회 등과 적극적 인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함.
- ② 대구 · 경북건축사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대한 대응의 건
- 본협회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대한 대응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함.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관련 의원입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근거를 들어서 대구·경북건축사회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 기로 함.
- ③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감리제도) 종결 서면보고에 대한 대응의 건
- 법제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 물감리제도) 종결을 본협회 회장에게 서면보고한 것은 조직 의 위계에 반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 부족으로 판단되 는 바, 위원장(위원회 위원 포함)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협 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 차후 이런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는 시도건축사회회장 연명 으로 법제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함.
- ④ 소규모건축물 감리 부실에 따른 사고사례 수집의 건
- 업무연락으로 요청한 소규모건축물의 감리로 인한 부실·위법사례(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12.8.9)는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의원입법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방송뉴스 및 주요신문 등에 보도된 자료 등을 '12.8.24일까지 본협회로 제출하기로 함.
- ⑤ 회장 입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자제 요청의 건
 - 협회 활동 등을 내세워 사전선거 운동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협회 회장이 자제토록 요청하고 임원선거관리규정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토록 요청함.

■ 제7회 건축영화제TF

제7회 건축영화제TF 회의가 지난 7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 상영작 선정 과정중에 있고 총 8작품 선정되었으나 추후 선정되는 작품들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유력작품 : 말하는 건축가 / Ekumenopolis / Illusionist / Kochuu Fantastic planet / Greening of Southie / UrbanizedInformal City / Homebodies)

- ▷ 이번 영화제 '도시'의 컨셉과는 별도로 건축전공 학생들을 위한 student edition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사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할 예정.
- ▷ HAF 및 GV 초청 인사분들 섭외 중에 있고 추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 HAF : 김광현 서울대교수 / 용산프로젝트 / 강봉진 / 건축계 인사 / 박해정 건축사
 - GV: 정재용 감독 / 박재동 화백 / 김예영, 김용근 감독 /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 제8회 건축영화제TF

제8회 건축영화제TF 회의가 지난 7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영화제 프로그램 컨셉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극영화 의 후보목록이 부족한 상태로 도시를 주제로 한 극영화 30 개를 후보목록에 더 추가하여 작품선정 고려를 해야 함.
 - ▷ 개막작품 유력후보인 Ekumenopolis의 감독과 프로듀서 가 우리 영화제에 초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상영료 대신 항공료를 지불해주는 것으로 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티켓 값과 예산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함.
 - ▷ 상영후보작에 오른 다큐맨터리들이 '환경건축'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사의 건축물과 사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수급에 힘써야 함.
 - ▷ 영화제 스폰서 섭외를 10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함.



 ▷ 본 포스터 작업에 들어갈 단편애니메이션 〈도시〉의 스틸 컷을 결정하였고, 7월 30일까지 포스터 작업을 완료하기 로 함.

■ 제9회 건축영화제TF

제9회 건축영화제TF 회의가 지난 7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 영화 수급 최종 결정자를 한동욱 위원과 유영식 위원으로 정하며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영작확정을 서두를 수 있 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은 스폰서링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함.
 - ▷ 개막작품 유력후보 Ekumenopolis의 감독초청을 예산문 제로 다음 기회로 미룸.
 - ▷ 영화 프로그램을 극영화 5편(SF2편, 고전영화 2편, 애니메이션 1편)과 다큐멘터리 5편(환경건축 및 도시관련다큐 4편, 떠오르는 신인 건축사를 다룬 다큐 1편)으로 정하였고, 수급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기로 함.
 - ▷ 홈페이지 샘플링을 월요일에 받아, 다음 주 금요일전에 홈페이지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

■ 제1회 건축영화제TF 소위원회

제1회 건축영화제TF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일 협회 회의실 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선정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추후 변경 가능)
 - 1. 다큐 : 말하는 건축가 / Ekumenopolis / Kochuu / Great expectation / Urbanisation China / 상계동 올림 픽 / 5Cities 5Places, one day /Urbanized
 - ▷ 픽션: Blade Runner / Metropolis / Brazil / 바람불 어좋은날 / 로마의 휴일 / 서울의 휴일 등을 확정 유력 후보에 리스트 업.
 - 2. 고전영화 섹션을 우리나라 고전 영화 한편과, 외국의 고전 영화 한편을 선정하고자 하나, '로마의 휴일'은 너무 대중 적이라는 의견으로 고려중에 있음.
 - 3. Blade Runner를 상영추진 중이나, 배급사 Warner Brothers에서 높은 상영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가격

협상을 해보고 예산부족으로 상영이 어려울 경우 Brazil 로 대체하기로 함.

- 4. 상계동 올림픽이 27분 단편이기 때문에, 상영시간을 맞추기 위해 14분짜리 단편 작품인 5Cities 5Places. one day 를 묶음 상영하기로 하고, GV는 작년 초대 손님이었던 박재동 화백을 넣어 프로그램을 추진.
- 5. 한국 고전 영화 섹션 후보작인 〈바람불어좋은 날〉의 이장 호 감독의 GV 요청을 서둘러 진행

■제7회 리모델링TF

제7회 리모델링TF 회의가 지난 7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 TF팀 운영 및 추진 방향의 건
- 건축법 개정안 리모델링 관련 조항 검토
 - ▷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조항을 검토하여 협회의 의견을 제출해야 함.
 - ▷ 리모델링과 관련한 사항은 실내디자이너 등 관련 업종 종
 사자들의 업역이 되지 않게 허가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함.
 - ▷ 입법예고기간 이내에 협회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다음 주 수요일(7월 17일)에 리모델링 TF팀 회의를 개최
- 리모델링관련 사항을 홍보하기로 함.
 - ▷ 불법임의 변경에 의한 리모델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의 손실을 초래함을 홍보하여 리모델링이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음.
 - ▷ 건축대전 기간에 세미나 또는 리모델링 관련 주제발표를 하여 TF팀에서 고민했던 사항들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함.
 - ▷ 리모델링 관련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차기 위원회에서라도 리모델링관련 사례집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계획(자료수집, 예산확보방안 모색 등)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다음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16시에 하기로 함.

■ 제8회 리모델링TF

제8회 리모델링TF 회의가 지난 7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 개정안 리모델링 관련 조항 검토의 건
- 리모델링 정의 개정에 대한 의견 (건축법 개정안 제2조제10호)



현 행	개 정 안	협회의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조 (정 의) ①	제 2 조 (정 의)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위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再)구성하고 주요구조부나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 및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 19. (생 략) ②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리모델링 적용완화 기준 중 정북방향 일조권 제외에 대한 의 견 (시행령 안 제6조제6호)

현 행	개 정 안	협회의견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 10. (생 략)	제 2 조 (정의) ①	제6조(적용의 완화) (현행과 같음)

- 제2호 : 기타의 건
- 다음회의 안건
 - ▷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관련 개정 건의
 - = 수직증축(수평·수직 증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협회안을 제시해야 함.)
 - = 감리(주택법에 의한 감리에도 설계자가 참여해야 함)
 - ▷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주제발표에 관한 사항
- 다음회의는 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

■ 제2회 전통건축TF

제2회 전통건축TF 회의가 지난 7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한옥관련 책자발간에서 원고료, 출장료 등 예산 확보가 중요함.▷ 목조회사 목록을 수록하고 찬조금을 받는 방안 등 예산확
 - 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제2호 : 건축사대회 때 세미나 또는 학술토론회 개최의 건
- 건축사대회 및 건축대전 일정
 - ▷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일 시 : 10월 25일 ~ 26일(본 대회 10. 26)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홀리데이인 호텔

▷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2)

일 시 : 10월 23일 ~ 26일

장 소 : 코엑스 A홀 및 세미나룸

- 건축사대회 강연주제는 정해져 있어 세미나는 힘듦.
-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때 '지역 전통건축 Tour'프로그램 진행 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지역 전통건축 Tour'를 진 행하기로 함
-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김지한 건축사가, 건축사대회는 장진영 건축사가 담당하여 준비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국가한옥센터에서 R&D사업진행, D/B 구축등을 하고 있다, 한옥센터의 로드맵을 위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공유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 전통건축 TF팀에서 전통건축관련 세미나를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제1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제1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회의가 지난 7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에 관한 건
-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건축법 개정, 의원발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각도로 논의하였으며, 대다수의 의견이 각론에는 반대의견을 주장하였음. 위원장이 협회장의 의중을 파악한 후 다음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 방향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함.

■ 제2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제2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회의가 지난 7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에 관한 건
- 설계와 감리분리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lacktriangle

건축법 개정, 의원발의(안)를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마련 하기로 함.

- ▷ 7월 26일 : 3차 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논 의·마련
- ▷ 7월 말 : 4차 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 축조심의를 통한 개 정안 마련
- ▷ 8월 초 : 5차 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 위원회안 마련
- ※ 전상훈 경북회장 및 조동욱 인천회장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이 논의하기로 함.

■제3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제3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회의가 지난 7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내용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에 관한 건
- 현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한 사안을 사무처에서 정리하고 백민석 위원이 이를 바탕으로 배경, 제안이유, 기대효과 등의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며, 이를 위원장이 최종정리하기로 함.

■ 제4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제4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회의가 지난 7월 3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의 건축법개정(안)에 관한 건
- 전상훈 위원, 조동욱 위원이 건축법개정안 초안을 작성키로 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회의에서 축조심의를 통해 위 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5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제5회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회의가 지난 8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의 건축법개정(안)의 건
- 1~5차례에 걸친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및 제출된 자료는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기로 함

■ 제5회 친환경TF

제5회 친환경TF 회의가 지난 7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방향의 건
- 동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박종철 위원, 이 기완 위원, 이창우 위원이 정리하여 위원장(사무처)에게 이 메일로 보내면 이를 위원장이 최종검토한 후 위원회(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또한 에너지평가사(고시 제정 예정)에 건축사가 포함되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민간자격제도 도입의 건
- 에너지평가사 교육기관 및 친환경인증 관련 민간자격 도입을 협회가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담당 임원 및 위원장 등과 간담 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사회(9월)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호 : 기타의 건
- 친환경 포럼에 관한 건
 - ▷ 임인옥 위원, 조일권 위원이 포럼 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음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제2회 농촌건축TF

제2회 농촌건축TF 회의가 지난 7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건
- 협회에서 기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찬성함. 동법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각 위원이 이메일로 의견을 주 기로 하며 위원장이 최종 검토하여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 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농촌건축TF팀 추진과제에 관한 건
 - ▷ 농어촌마을가꾸기 입찰사례를 조사 · 검토한 후 위원장과 협의후 농어촌공사에 건의하기로 함

■ 제3회 건축위원회

제3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검토에 관한 건
- 국가, 지방단체가 개인사업자의 시장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



며 시장을 빼앗는 (점유)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면제기관 폐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과 후차적으로 입법관련기관 등에 제안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함.
- 이와 같은 방법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면제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와 파행으로 운영되거나 시대 상황에 역행되었던 사례의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시급함.
 - ▷ 파행 또는 시대 상황에 역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성, 품 질저하, 건축설계 시장 왜곡 등의 문제점, 폐지의 당위성, 명분 등 논리개발이 필요함.
 - ▷ 임정영 위원께서 관련법의 연혁 및 개정 사유 등을 발췌 정 리하여 다음주 화요일까지 사무처에 통보하기로 함.
 - ▷ 국공립대학, 교육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면제기관에 해당되는 법률적 과정을 발췌하기로 함
 - ▷ 사무처에서는 관련자료 등을 조사 취합 정리하여 다음주 중 전 위원과 자료를 공유하여 위원의 검토 의견을 2012.
 7. 24 까지 받고 보완, 정리하기로 함.
- 검토 수정된 자료가 확정되면 내부결재를 통하여 7월 말 경 대 외적인 업무를 추진하기로 협의함.
- 제2호 : 용역발주제도 개선에 관한 건
- 용역발주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검토의 건이 정리되면 용역발주제도 개선의 건을 착수함.
 - 다음회의 8월 29일 수요일 16시.

■제1회 법제소위원회(건축법령)

제1회 법제소위원회(건축법령) 회의가 지난 7월 24일 협회 회의 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징계 양정기준 마련에 관한 건
- 징계의 종류를 5점척도로 구성하여 양옥경 위원이 정리하여 다음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이때 변호사협회 및 전문가협회 등의 관련법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회 법제소위원회(건축법령)

제2회 법제소위원회(건축법령) 회의가 지난 7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령 재입법예고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음.

- ▷ 리모델링 부분은 윤홍노 위원, 왕정한 위원이 검토하기로 하며, 최종 위원장이 정리하기로 함.
- ▷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에 정화조설비, 전기시설, 상·하수 도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건축설계 규정」으로 수정
- ▷ 고층건축물의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하는 문제는 다음회 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법 징계 양정기준 마련에 관한 건
- 건축사법 제28조, 령제29조의2, 규칙제30조의3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3회 법제소위원회(건축법령)

제3회 법제소위원회(건축법령) 회의가 지난 7월 30일 협회 회의 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령 재입법예고 개정(안)에 관한 건
- 제2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국토부 등을 통해 확인할 사안을 사무처에서 파악한 후 다음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법 징계 양정기준 마련에 관한 건
- 건축사 징계 양정기준과 관련하여 윤홍노 위원이 다음 회의 때 까지 초안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의 에 관한 건
- 이 규칙에 대해 건의한 박형일(범 건축) 건축사를 다음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박형일 건축사의 개정 사유 및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법제소위원회(건축법령)

제4회 법제소위원회(건축법령) 회의가 지난 8월 3일 협회 회의 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의 에 관한 건
- 범 건축의 김시형 건축사가 건축법 개정(안)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하며, 금일 회의에서 부적합으로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범 건축에서 제공하면 이를 재검토한 후 소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 함.
 - ▷ 규칙 제30조제1호나목(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 lacktriangle
- '승강장은 각 층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를
- '승강장은 비상시에 해당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의 내부 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직접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갑종방 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
- ▷ 규칙제30조제1호사목(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 트렌치의 삭제여부는 효용가치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 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 ▷ 규칙제30조제1호아목 및 자목 개정안에 대하여
 - 제연설비의 의미를 소방관계기관에 확인하여 재검토하기 로 함
- ▷ 규칙제30조제2호나목 개정안에 대하여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을
- '각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이르는'으로 수정
- ▷ 규칙제30조제2호다목 개정안에 대하여
 - 가압방식, 배연설비, 제연설비에 관한 의미 등을 파악한 후 재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법령 재입법예고 개정(안)에 관한 건
- 사무처에서 정리한 개정안은 각 위원이 의견을 이메일로 주기 로 하며 이를 최종 위원장이 검토하여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 로 함.

■ 제8회 법제위원회

제8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돼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주택법 개정(안)에 관한 건
-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각 위원은 의견이 있는 경우 사무처에 전달하고 위원장의 검토 를 받아 건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법시행령 및 오피스텔건축기준 개정전의 검토에 관한 건
- 부산 법제위원장과 유선상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도록 하여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 석면감리교육에 관한 건
 - 지난 법제위 회의결과를 관련 부서 및 위원회에 업무협조

로 전달하여 우리협회의 석면감리 교육기관 선정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함.

- ▷ 법제소위원회(소규모건축물 감리) 운영여부에 관한 건
 - 본 사안에 대해 이사회결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4개월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사안으로서 특별위원회가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 및 완료보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도의 중대한 결정사항을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법제위원회에서 또 이를 다루는 것은 자원 및 인력의 낭비, 중복으로서 이미 충분한 논리가 정립된 특별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건의하기로 함.

■ 제2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2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침의 건
- 회원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함
- 한달에 2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이를 위해 이사회에 요청하여 회의비 2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기로 함.
- 제2호 : 교육청발주 설계용역 비용의 정상화 방안의 건
- 회의자료에 첨부된 문서를 김지한 위원이 수정하여 교육청, 지 방자치단체 등 정부 각 기관에 보내기로 함.
-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이사회에 요청하여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함.
- 제3호 : 저작권침해의 중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의 건
- 금번 회의시 정경수 건축사의 의견을 청취했으니, 다음 회의에 는 이기수 건축사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로 함

▲기타사항

• 다음 회의는 7.30(월) 13시부터 대전역 KTX역사 회의실에서 이기수 회원을 참석시키고 개최하기로 함.

■ 제3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3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30일 대전역 KTX 역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공기관(지자체 및 교육청 등)발주 설계용역비의 정상 화 방안의 건



- 8月 이사회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 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임 ▷예산 승인과 관련 있음.
 - 문서 발송 준비
 - ▷지자체 : 신상일 위원
 - ▷교육청 : 이광천 위원
- 이사회 결과와 관계없이 지자체 및 교육청의 부당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함을 결의.
- 제2호 : 저작권 침해의 처리 방안의 건
- 상대방인 대전 이기수 건축사 참석하여 증언함.
- 성신학교 설계는 정경수 건축사가 했음을 인정하고 건축물대 장에의공동등재에 동의하며 "확인서"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 는 등 협조하겠다고 함.
- 조정안에 대해 청주 신상일 위원이 이의 제기한 정경수 건축사 와 협의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토록 함.
- 제3호 : 인테리어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 처리 방안의 건
- 인테리어 업무는 법에서 건축사의 주요업무로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임.
- 국토해양부, 인테리어 협회에서의 건축사 업무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
- 김지한, 임광철 위원이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고. 결과를 도출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신고 및 업무대행 수수료의 건
-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5호 : 면허 대여 문제에 대한 대응의 건
- 추후 논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8月 이사회에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이사들을 설득하여 예산확 보에 노력할 것
- 차기 회의 일정 확정 2012.8.29(수) 오후 4시
- 위원회 활동 노력을 건축문화신문(본협), 건축사신문(부산건축 사회)등에 적극 홍보하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결론 냄.

■ 제4회 정책위원회

제4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전문회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의 건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 의하기로 함.
 - ▷ 전문회원 활용방안
 - = 협회홍보활동에 활용

- = 전문 인력풀로 활용
- = 건축교육원 커리큘럼 개발시 참여유도
- ▷ 전문회원 활성화 방안

토가 필요

- = 전문회원의 범위를 정치, 경제, 사회 등 좀 더 다양한 분 야의 인사로 확대하고 전문회원의 역할 명시
- = 전문회원이 대부분 교수회원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만큼 지명도가 있는 건설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 소비자 관 련 단체 등에 전문회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추천받은 인사를 추후 전문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 검토 다만, 전문회원 중 이적행위를 하는 회원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방안도 검
- 제2호 : 대한여성건축사회 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의견제출 의 건
- 오동욱 위원이 발의한 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관련회원 징계 조치에 대한 사항은 오늘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 모두가 해당 회원을 협회 제규정에 따라 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업무 및 설계 보수대가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
- 2차에 걸처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되, 1차는 대내외 인사를 초 청하여 9월경에 개최하고, 2차는 전 회원을 중심으로 10월 26 일 대한민국건축사대회시 개최하기로 함.
- 본협회 8월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3인(길기현, 조재용, 최봉기)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함.

▲기타사항

- 협회차원에서 매년 설계비 평균가를 규모별, 용도별로 발표 하도록 요청함.
- 도면 작성기준이 별표로 나와 있지만 너무 부실한 만큼 좀 더 디테일한 도면기준을 협회에서 만들어 배포될 수 있도록 요 청함.
- 준공도면 작성은 건축사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나 건설회 사에서 건축설계비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빌미로 설계비 지 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만큼 법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토록 요 처하
- 준공도면 작성 후 준공승인 신청시 설계자의 날인을 받아 하는 것은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는 만큼 개선토록 요청함.
- 설계도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설계도면을 스크 린해서 KIRA마크를 날인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건의함.

■제1회 정책소위원회

제1회 정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업무 및 설계 보수대가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
- 토론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 제 목 : 건축시장 위기해법과 업무확대 정착 방향
 - ▷ 토론회 개최배경 : 추후 위원장이 작성하여 제출

▷일시:

- · 1차 토론회 : 8월 25일~9월 첫째주 사이
- · 2차 토론회 : 10월 26일(광주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 1차 토론회 장소 : 협회 대강당, 과학기술회관, 건설회관, 상공회의소 중 택1(예산 여건에 따라 선택)
- ▷ 1차 토론회 참석대상 : 약 150~300여명으로 하고 해당 시 도건축사회에 참여 독려 요청공문 발송
 - 본협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 · 서울건축사회 25개 구별 5~10명 동원
 - · 경기, 인천지역 회원
- ▷ 1차 토론회 사회자 : 정책위원회 위원 중 1인
- ▷ 주제 및 발표자
 - · 제1주제 : 건축시장 위기해법, 제2주제 : 업무확대 정착 방향
 - · 발표자:
 - 외부: 박인석 교수(명지대), 김광현 교수(서울대), 최찬 환 교수(서울시립대), 유광흠(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내부 : 이종정, 이맹룡, 전영철
- ▷ 좌 장 : 위원회 위원 또는 교수
- ▷ 토론자 : 8~9명 내외
 - · 국토해양부 공무원(1인), 지식경제부 공무원(1인), 서울시 청 공무원(2인)
 - · 대학교수(1인), 연구원(1인), 언론 또는 NGO 단체 인사(1인)
 - · 협회 서울회원(1인). 지방(2인)
 - · 행정(재정)학회 인사(1인)
- ▷ 관련 예산은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사무처에서 작성한 후 위 원장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
- ▷ 기타 2차 토론회 개최계획은 추후 다시 협의

■ 제5회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제5회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의 실무교육 운영 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건

- 국토부에서 협회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지만, 건축사의 실무교 육 운영 등에 관한 기준(안)의 최종내용을 계속 확인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실무교육에 관한 건
- 건축산업대전 연계교육으로 국가정책, 법령해설, 친환경, 한옥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건축사대회 시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자격등록, 실무교육 및 윤리를 포함한 교육(강연)을 중앙윤리위원장에게 요청키로 함.
- 금년에는 교육예산이 없고, 회원에게 교육비를 받기가 어려우 므로, 산업대전연계교육 시행예산을 등록원에서 지출가능한지 확인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교육원』세부운영계획(안) 작성방향에 관한 건
- 건축교육원 예산은 총회추인을 전제로 세부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8월 이사회에 실무교육과정 연구용역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되어야 하므로, 회장님 방침을 받아 예비모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기타사항

- 위원회 명칭정리
- 위원회 명칭은 이사회승인을 받았으므로 기존명칭을 사용하기 로 함
- 건축물의 유지 · 관리점검자 교육
- 정책연구실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내용은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함.

■ 제6회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제6회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에 따른 일정계획의 건
- 건축사 실무교육준비는 실무교육일정계획(안)에 따라 진행하고, 실무교육 관리프로그램 발주는 1, 2단계로 구분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의 건
- 국토부 고시가 늦어지고 있어 우선 한국건축산업대전, 대한민 국건축사대회와 관련하여 실무교육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국 토부에 공문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하기로 함.
- 윤리교육은 이각표 중앙윤리위원장이 고사함에 따라 위원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검토 후 실시 하기로 함.
- 전문교육 4과목(국가정책, 법령해설, 친환경, 한옥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령해설은 국토부 건축기획과, 친환경은 건설기술연구원 김현수박사, 한옥교육은 장순용 위원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강의 내용 및 강사섭외를 하기로 함.

- igoplus
- 2012년도 교육은 무료로 하되 자격등록한 건축사만의 실무교 육으로 인정됨을 고지하기로 하고,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교 육은 사전교육 신청 건축사에 한하여 최대 2시간을 인정하기 로 함.
- 제3호 : 『건축교육원』실행예산(안)의 건
- 2012년도 건축교육원회계 실행예산(안)은 검토 후 다음 위원 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시 도 건축사회 교육 활성화의 건
- 시·도 건축사회 시행교육시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 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의에 결정하기로 함.
- 각 시·도 건축사회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 교육을 수행할 교육위원회(T/F 등 형태는 건축사회 실정에 따름)를 구성할 것을 적극 요청하기로 하고 12월 이전에 전체 워크숍 또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제5호 : 실무교육과정 개발 용역의 건
- 실무교육과정 개발 용역 건은 8월 이사회에 회장 방침을 받은 후 상정하기로 함.

■제3회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제3회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3일 협회 회의 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연금 '설문조사' 결과 검토의 건
- 건축사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현황을 검토함
- 제2호 : 건축사 연금제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 '건축사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이사회의 이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은 소의원회에 위임함. 아울러, 연금기금은 정액적립형, 실적적립형(업무실적 기준), 추가적립형을 병행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 건축사 연금제도 연구용역 추진방안
 - 연 구 명 : 건축사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자: 협회 '친환경건축연구원'+건축사연금추진 소위 원회 위원(장)과 외부전문가(금융 및 보험)를 연구진에 참 여토록 하는 방법
 - ※ 친환경건축연구원에서 연구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금추 진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공동 연구수행
 - 용 역 비 : 30,000,000원 이내(12년도 예산반영액)
 - 사 유: 건축사업무·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연금관련 외부전문가(또는 기관)만으로는 연구의 실효성확보에 한계가 있음

■ 제5회 건축사연금추진 소위원회

제5회 건축사연금추진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연금제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관한 건
- 제3회 건축사연금 추진위원회(12.7.23)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한 '건축사 연금제도 연구용역 추진계획 및 과업지시서안'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12.8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 건축사 연금제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협의
 - 당초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에서 협회 친 환경건축연구원에 연구를 발주하는 방법으로 전체위원회 의 의견이 합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업지시서안을 수 정, 보완함
 - 연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 이내로 수정
 - · 과업지시서상 과업 추진배경 및 과업의 목적, 과업의 내용, 과업 수행방법, 보고회 일정 등을 연구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정리함

▲기타사항

 건축사 연금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회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함

■제5회 사업위원회

제5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2 마케팅 현황보고 및 동시행사 기획의 건
- 마케팅 현황보고 및 전시활성화를 위한 동시행사(부대행사) 를 협의함.
- 유료부스[무료부스 포함 총부스]현황 /2012.07.18 기준
- ※ 유료부스(200부스) 목표달성율: 32.5%

참가업체	기본부스	독립부스	부스 합계
31 [35]	42 [48]	23 [25]	65 [73]

-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및 작품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 원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홍보부스를 지원하고 위원장상도 적극 추 진키로 함:
- 친환경 건축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발표회는 협조문서를 접수받아서 진행하고 비용부분 등은 추진상황을 지켜본 후







재협의키로 함.

- 건축사실무교육은 담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전시참가
 와 추천심사참여를 교육시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율키로 함.
- 자재추천심사에 관한 심사단 및 스케줄 조정은 서광우위원에 게 위임함.
- 그린시티위크 통합컨퍼런스 개최는 교육원 일정상 거절키로 함.
- 경품이벤트는 추후 재협의키로 함.
- 제2호 : 부실품목에 대한 전시회 참가신청 거부의 전
- 전담위원이 업체 미팅하여 협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최종결정키 로 함.

▲기타사항

- 건축/건설관련 전문지 광고는 '우수건축자재추천' 홍보로 진 행하였으며, 결과물을 취합하여 추천서교부업체 26개사에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업체관리중 임.
- 협회 'BIM프로그램 활용방안 패밀리 구축'에서 요청된 안건 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이 어려움.
- BIM에 대한 건축계의 가이드라인(문서작성)이 현재 없음.
- 각 자재업체의 자료 구축 실태가 매우 열악하여(2D 데이터 도 부실함) 부담되는 작업임.
- 건축자재 전체에 대한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위와 더불어, 친환경TF(자재 인증 추진), BIM TF(회원을 위한 BIM기반 구축), 사업위원회(추천자재 DB화)의 협업이 필요함.
- 협회발행지(건축사지/건축문화신문)에 행사광고를 유료로 게재키로 함.

■ 제2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2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자격등록증 등 제작에 관한 건
- 건축사자격등록증은 시안 3가지를 바탕으로 조인숙 위원이 수정·보완하여 다음 회의 때 확정하기로 하고, 건축사자 격등록카드에 따른 카드리더기는 시·도건축사회 배분용을 포함하여 20대를 구매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실무교육 고시(안)에 따른 세부 추진업무에 관한 건
- "건축사실무교육운영위원회" 구성여부는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안) 최종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건축사등록원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

로함

- 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수수료는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하여 심사회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고, 자기계 발과정 인정심사수수료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 계발과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국토부와 다시 협의하기로 결정함.
- 신청공고문(안) 작성은 김윤 위원이 담당하고, 신청공고문(안) 을 회람하여 각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기타사항: 해외사례자료 국문화 작업에 관한 건

• 해외사례자료 국문화 작업은 4개 중 1개의 자료만 번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을 다음회의 때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3개 의 해외사례자료 국문화작업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7회 국제위원회

제7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해외단체장 초청의 건
- 일정은 3박 4일로 협의하고 해외단체장 초청 및 명예회원 추대 대상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국제담당이사의 의견 을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함
- 제2호 :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의 건
- 대표단 업무 분장은 지금까지의 국제위원회 회의 결과를 따르고 오동희 위원을 사회책임위원회(ACSR)에 참여하도록 협의함
- 행사 참석에 따른 위원회별 발표준비를 매 회의마다 경과보고하기로 협의
- 사회책임위원회(ACSR) 요청 자료를 담당위원이 준비하기 로 협의

《ARCASIA 위원회 업무분장 - '12, 1월 / 5월 / 7월 국제위원 회 회의 논의결과》

구 분	위 원(정)	위 원(부)
교육위원회 (ACAE)	조인숙	이윤석, 주 범
친환경위원회 (ACGSA)	이근창	전성호
건축실무위원회 (ACPP)	신춘규	심형섭, 이승석
Fellowship 위원회	김기	시덕
UIA 제4지역 협의회	김성민 UL	A 대리이사
사회책임위원회 (ACSR)	김성민	임희선, 오동희
내부협의위원회	☞ 각 위원회 위	원장으로 구성

• 제3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일자를 NABAR 사무국에



문의하기로 협의함

- 협의회 및 건축세션 참가, 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료를 준비 하기로 협의함
- ㅁ 연사 및 발표자 논의결과

일자		발표주제	발표자 / 연사						
		APEC 건축사 제도	대한민국APEC등록 건축사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 (예정)						
	협 의 회	건설시장 감리에 관한 소통, 건축사 실무행정, 건축사의 책임과 신뢰 3국의 건축사 윤리	국토해양부 관계자 (협의 중)						
12.11 (화)	건축세션							차기회의 주최 단체 소개발표 (대한민국 인천)	국제위원 또는 인천 건축사회 관계자가 발표하는 방안 제안
		주제 1 국제적인 관광 섬(Island) 건설에 관한 의견	심형섭 위원						
		주제 2 자연재해 방지와 건축에서의 완화	서울특별시 관계자 (협의 중)						

▲기타사항

- 건축사지 게재 담당위원 : 전성호, 한동수, 오동희, 이윤석 위원 (지역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게재하기로 협의, 코디네이 터 : 이윤석 위원)
- Time Line Chart Project
- ARCASIA 회장으로부터 ARCASIA 홈페이지에 관한 보고 서를 전달받은 후, 홈페이지 및 Time Line Chart에 관한 사항은 관련내용을 담당해 온 국제담당이사가 전산팀과 협 의하여 추진하기로 협의
- UIA PPC에서 요청한 자료는 국제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을 협 의 후 올리기로 함
- 제8회 국제위원회 발표자 : 심형섭 위원 (관련업무내용 발표 예정)

■ 제4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제4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6일 협회 회의실 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2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제1차 등록갱신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제4차 APEC건축사 중앙이사회 참가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기타사항

- 본 협회 회장의견
-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제안
-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부족예산 충당방안 논의 제안
-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인원감소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 제안
-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 임기(3년)에 관한 논의 제안
- ※ 본 협회 위원 임기: 1년

■ 제2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소위원회

제2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2기 APEC 등록건축사 갱신 신청자 23명 중 14명은 갱신 인정, 9명은 갱신 불인정,
- 최소 갱신가능 시간 72시간 중 부족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신청자에게 6개월의 기간 동안 부족시간에 해당하는 교육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기로 협의.
- 갱신 불가능한 신청자 9명 중 5명은 조건부로 갱신 인정함.

■제4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4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실행계획 등의 건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협의함.
 -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실행계획(안) 내용 협의
 -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위원회에서 검 토한 실행계획(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폐회시 건축사의 가족합창제 출연팀과 회원들이 함께 부르는 전체 합창곡은 장양순 위원이 작사·작곡한 '건축사의 노래'로 하는 방향을 집행위원회에서 검토 한 후 본협회와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로 함.

▷프로그램북 수정사항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중에도 배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좀 더 추가 보완하기로 함.

▷대회 포스터 시안

- 집행위원회에서 수정·보완한 안에 동의함.



▷대회 초청장 시안

- 집행위원회에서 제작한 안에 동의함.
- 본협회 초청장 발송 대상에 대선출마자도 포함토록 요청함.

▷기타사항

- 대회 후원금 유치 홍보를 위한 4페이지 분량의 대회 안내 책자(리플렛) 약 350~500부 정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여 본협회로 발송하기로 함.
- 대회장이 대회영문명칭이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너무 길어 줄이도록 검토·요청하였으나, 영문명칭은 대회 운영규정으로 명시된 것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 하고 시간도 촉박한 만큼 차기 대회시 이를 재검토하 는 것으로 결정함.
- 제2호 : 건축비젼 선포식 선언문 작성의 건
-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장양순 위원이 검토·보완하기 로 하고, 최종 시안은 시도건축사회장 협의회를 거쳐 확정 하기로 함.

▲기타사항

-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합동회의는 본협회 임원도 포함하여 9월 4일(화)에 광주에서 개최키로 하고, 당일 이사회 개최 및 임원 참석비용처리 등의 문제는 서용주 전문위원이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함.
- 건축사대회 홍보를 위해 시도건축사회에 공문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이 9월과 10월경에 개최되 는 시도건축사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대 회안내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함.
- 건축사대회 중식시간에는 시도건축사회 회원 모두가 함께 할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후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함.
- 집행위원회에서 요청한 대회기간 중 본협회 건축사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황정복 위원이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적극 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고, 대회 기간중 동시에 개최되 는 아시아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ISAIA)에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연계여부를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제4회 기획위원회

제4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붙임 내용과 같이 협의하고 이 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2호 : 전문회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 기획위원회의 논의과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 시키기로 함
- 제3호 :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의 건
- 협회는 시대변화에 맞춰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사조직(법인협의회, 여성건축사회 등)을 협회기구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건축계소식

서울시건축사회, 소규모 건축물 감리공영제 감리자 발대식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지난 7월 26일 14시에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소규모 건축물 감리공영제 감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서울시건축사 제46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결의로 통과된 소규모건축물 감리공영제의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서울시 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신청을 받 아 최종 선정된 감리자(393명)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감리공영제 업무 대상은 서울시의 허가대상 건축물로서 2,000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와 건축사가 동의하 는 건에 한해 자율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9월 1일 착공신 고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건축사회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시 사각지대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감리업무를 감리공영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 및 위법방지, 건축물의 품질확보,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 불법건축물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대구건축사회 봉사단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광역시 건축사회봉사 단(회장 이택 붕/단장 김은 선)은 8월 18일 달성공원 토요 나눔마당 무료 급식소에서 회 원 및 회원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건축사회 봉사단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셋째 토요일 달성공원에서 토요나눔마당 무료급식 자원 봉사를 통해 우리 지역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건축사마라톤동호회 '2012년 인천송도마라톤대회' 참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마라톤동호회는 오는 10월 7일 인천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2012년 인천송도마라톤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풀, 하프, 10km, 5km 코스로 진행되며, 1만 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9월 1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풀코스 10km 30,000 원, 하프코스 5km 15,000원이다. 대회당일 건축사마라톤동호회비는 1만원이며, 참가신청방법은 인천송도마라톤 홈페이지(www.songdorun.com)에 접속해 개인별 참가 신청하면 된다.

제1회 현대한옥디자인 공모전

한국현대한옥학회는 한국의 전통건축과 공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한옥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제고시킴과 아울 러 신진 작가 발굴 및 국민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현대한옥디자인 공 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전통건축인 한옥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의 건축 및 실내건축 관련 공간 디자인'이며, 응모자격은 2년제 대학이상 건축, 실내건축 및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생과 건축, 실내건축 및 디자인 관련 분야 신인 디자이너이다.

1차 작품접수는 오는 11월 06일까지이며, 심사발표는 11월 09일 학회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이어 2차 작품접수는 2013년 01월 08일 까지이며, 이의 공개심사는 1월12일에 개최된다.

오후2-4시 (장소 추후공지)

- 접 수 처: 사단법인 한국현대한옥학회
-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삼성관 707호
- 출품신청서: 출품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접수

문의처: (사)한국현대한옥학회 사무국, 02) 2123-8276

바로잡습니다

본지 2012년 8월호(520호)의 54쪽 현상설계 광교신도시 문화복 지시설(우수작)내용 중 건축사의 성명을 '은동식, KIRA | (주)이가 건축사사무소 + 조도연, KIRA | (주)디엔비 건축사사무소 '로 바로 잡습니다.

신간안내

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 – 근현대문화재

김성도 저 | 240쪽 | 도서출판 고려



근 · 현대 건축문화재는 우리가 살아 가는 시대와 가까워 매우 친밀하게 느 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 과 직결되므로, 근 · 현대 이전의 전통 적 건축문화재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 · 현대 건축문화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쉽게 해설한 기본 개설서이다.

개관, 제도, 수리, 국내외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저자는 현재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문화재수리 정책을 담당 하고 있다.

한양 왕의 집, 내 집처럼 드나들기

이용재 저 | 336쪽 | 책이있는마을



저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또는 잊고 지냈던 서울의 문화유적과 당시의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주로 소재한 유적지는 사실상 조선시대 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들로, 특유의 대화체 서술법을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찾아가보지 못한 곳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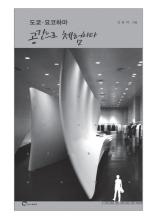
끼게 만드는 이 책은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조선왕조가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의 현장들과 건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조선시대 도읍인 한양, 이곳에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느낄 수 있으며, 역사와 인문학에서 멀어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준다. 사례지로는 건



청궁. 경희궁. 종묘. 낙선제. 운형궁 양관 등 한양 도성안의 19개 문화유적을 설명하고 있다.

도쿄 · 요코하마, 공간으로 체험하다

김문덕 저 | 328쪽 | 미세움



도쿄나 요코하마는 이제 일일생활권 이라고 할 만큼 가깝고. 현지에는 한글 이 병기된 정보도 많아 기분전환으로 쉽고 가볍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도 시가 되었다. 하지만 쇼핑, 관광 등 단 편적이고 시각적인 면에만 치우친 최 근 여행의 경향은 도시의 본질을 이해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 책은 도쿄의 건축물과 공간을 느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건축 여행이란 내

가 가보지 못한 장소에 대한 공간적인 체험 이상으로 복합된 문화 적인 체험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런 시각으로 도쿄, 요코하마 를 바라보고 있다. 책에 수록된 수차례 답사를 통해 작성된 지도에 는 지역별 골목과 건축물이 세세히 표기되어 있어 도쿄로 건축여행 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저자가 설명 하고 있는 주요 도시는 오다이바, 긴자, 니혼바시, 우에노, 다이칸 야마, 마쿠하리 등 도쿄 전역과 요코하마이다.

독일 미술관을 걷다

이현애 저 | 352쪽 | 마로니에북스



축구의 나라 독일. 하지만 한 해 방 문객 수를 따져 보면 축구 경기보다 미 술 전시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이 더 많다고 한다. 이 책은 저자의 십 여 년간의 유학 생활 경험과 미술사학 자로서의 인문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쓴 미술관 이야기이다. 책 속에는 독일 전역 13개 도시, 31개의 미술관 이야기 가 '수집'과 '휴식'이라는 화두 아래 파

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또한 대도시와 주변 문화도시를 비롯하 여 동독 지역의 대표적인 미술관까지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독일 미술관의 특징을 크게 세가지로 언급하는데 그 첫째는 왕실 황족과 귀족들의 문화가 살아있는 보수 전통, 둘째는 시민들의 자발성으로 부르주아 계층의 기부로 건립된 미술관들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거대한 수집 스케일로 독일인들이 장르별 미술품만을 수집 한 것이 아닌 미술관 자체를 한데 모아 놓은 점에 주목하였다. 圖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 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 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 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 (041)942-5922 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회/496-3900

■부산광역시건축사회/ (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

(031)247-6129~30

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 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 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 (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 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 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 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 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 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 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 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 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 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 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 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 (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

(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 (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강동구건축사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공 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 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 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 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 (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 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 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 (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 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 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 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 중구건축사회/2266-4904·중랑구건축사 건축사회/(063)631-2223·익산지역건축사회 (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

(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 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 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 (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 (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 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 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 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 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 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 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 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 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 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 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 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 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 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 (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 (031)246-8046~7·시흥지역건축사회/ 회/(054)383-8608·청도지역건축사회/ (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 (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 (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 (055)246-4530~1

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 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삼척 (055)355-1323·사천시건축사회/(055)83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

축사회/(055)585-8583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8.9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주소입력: http://m.kira.or.kr

- 포털사이트 : 대한건축사협회 검색후 클릭시 자동연결

- QR코드 인식 후 접속

○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방법

· 메인 상단 탭: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의 총5개 게시판을 탭으로 링크,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게시판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메인게시판 : 각 게시판의 최근내용을 보여줌.

· 하단아이콘: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 협회설립목적/연혁, 조직, 주요사업, 역대임원, 회원검색, 알림광장, 회원가입안내 등의 내용을 각각의 아이콘을 터치함으로서 볼 수 있도록 구현.

· 관련 사이트 : 각 회사의 로고를 회전하는 배너형식으로 구현,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오시는 길: Daum지도를 연동하여 확대축소가 가능한 지도로 표현

· PC버전보기 :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대한건축사협회의 PC버전 홈페이지로 이동



|QR코드 인식방법|

큐알(Quick Response)코드는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와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보한 코드 체계이다. 아래 QR코드는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의 주소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히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다.

O QR코드 인식방법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QR코드를 읽어 들이면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입력 없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OVERSEAS NEWS REVIEW

한동수_Han, Dong-soo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중국 근현대건축의 개척자, 양정보[®] 고택 보존

A Pioneeor of Chinese Modern Architecture, Preservation of Yang Tingbao's Old House



양정보 고가의 외관 전경 (사진 : 張十慶 교수 제공)

필자는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바이두 (Baidu)를 검색하다가 지방신문인 양자만보(揚子晚報) 2012 년 8월 4일자 인터넷판 기사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중국 근현대건축의 설계 및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양정보(楊廷寶, Yang Tingbao, 양팅바오: 1901-1982) 선생의 고택(故宅)이 금년 5월 18일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2개월 만에 기념관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보도였다. 양정보 고택은 1992년 이미 시급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성급문물보호단위로서 2011년 9월 23일 남경시 현무구 정부와 친딸 양사영(楊士英) 사이에기념관 건설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신문 기사가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은 북경 청화대학의 건축과를 만든 양사성 선생과 부인 임휘음 선생이 1931년부터 1937년 까지 6년간 살았던 북경 총포호동(總布胡同)의 고택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논란 끝에 금년 초 흔적도 없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보도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양정보 고택의 주소는 남경시 현무구 성현가 104호로 자신이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동남대학과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1946년 노모와 가족, 보모 등 9명의 식구를 위해 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있던 기존의 낡은 집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설계하여 지은 벽돌구조의 서양식 2층 주택이다. 대지면적은 1,305㎡, 건평은 232㎡(차고 등 부속건물 포함)



이며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건축 당시 부족한 경비 때문에 외관보다는 기능에 치중하여 소박하고 꾸밈이 없으며 평면배치가 치밀하고 간결한 모습을 지닌다. 그는 집이 완성되고 나자 성현가에 축조한 작은 집이라는 의미로 '성현소축(成賢小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념관으로 개조하기 위한 시공현장의 기술책임을 맡은 동남 대학 건축학원 순경(淳慶) 선생에 따르면 보수의 핵심은 건축품 격과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로 지반과 벽체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구조보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다만 공공위생을 위해 마당의 동남쪽에 화장실이 신축, 추가되었다. 전체 공사비는 예상을 초과하여 모두 2억 1,300만 원(한국 화폐 기준) 정도가소요되었다. 향후 이 기념관은 양정보 선생의 유품 전시와 더불어 건축전시회나 소규모 전문 강좌를 개최하기 위한 공공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위에서 바라본 양정보 고가의 전경 (사진:張十慶 교수 제공)

한 때 남양북량(南楊北梁, 남쪽에는 양정보가 있고, 북쪽에는 양사성이 있다는 의미)이라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양정보와 양사성 두 사람은 중국 건축계의 쌍벽을 이루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삶의 터전을 꾸렸던 고택의 운명은 보존과 철거라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중국의 역사건축물이 직면한 현주소를 가감 없이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유명 인사들의 고택이 보존과 철거의 운명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건축인의 고택이 거론된 바는 없다. 이제는 그 흔적이라도 찾아서 팻말이라도 붙여 기려봄직하다. 그리고 향후 기념할만한 건축인의 고택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싶다. 유명 인사들의 고택은 규모가 크고 특별한 양식을 가진 것도 있지만 대개는 평범한 주택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의견에 반발이 심하다. 그러나 집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집을 지키



양정보 고가의 거실 내부공간 (사진:張十慶 교수 제공)

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이 글을 쓰기 위해 사진자료 를 직접 찍어서 보내준 동남대학 건축학원의 張十慶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



동남대학에서 만든 양정보 선생의 포스터 (사진:張十慶 교수 제공)

1) 양정보는 1901년 10월 2일 하남성 남양현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인휘(仁輝), 1921년 청화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펜실바니아대학 건축과에 입학하여 1924년에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27년 귀국한 뒤 기태공정((基泰工程司)에서 건축설계 책임자로 근무를 했으며 1940년 국립중앙대학(이후 남경대학, 남경공학원, 동남대학으로 명칭이 바뀜) 건축과 교수로부임하여 1982년 서거할 때까지 재직했다.

대표작으로는 남경의 중앙체육장, 중앙의원, 중앙연구원 지질연구소, 북경의 교통은행, 청화대학 도서관 증축, 화평빈관, 심양의 경봉철도 심양역 등이 있다. 참여작품으로는 북경의 인민대회당, 인민영웅기념비, 북경기차역, 북경도서관, 모택동기념당 등을 들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7월말

구분											722											
																				합	계	
건축	1	인	2	인	32	!이상	소	. 계	1	인	2	인	3	3인	4	인	5인	이상	소	. 계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755	5,755	91	182	8	24	5,854	5,961	1,681	1,681	234	468	57	171	26	104	19	125	2,017	2,549	7,871	8,510
서울	904	904	22	44	1	3	927	951	857	857	127	254	42	126	8	32	13	76	1,047	1,345	1,974	2,296
부산	489	489	11	22	2	6	502	517	110	110	24	48	1	3	3	12	2	15	140	188	642	705
대구	485	485	21	42	4	12	510	539	69	69	18	36	2	6	3	12	0	0	92	123	602	662
인천	281	281	4	8	0	0	285	289	66	66	6	12	1	3	0	0	0	0	73	81	358	370
광주	211	211	0	0	0	0	211	211	43	43	7	14	1	3	3	12	0	0	54	72	265	283
대전	264	264	6	12	0	0	270	276	31	31	8	16	4	12	1	4	1	13	45	76	315	352
울산	184	184	5	10	0	0	189	194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11	220
경기	806	806	1	2	0	0	807	808	244	244	19	38	3	9	2	8	1	5	269	304	1,076	1,112
강원	191	191	2	4	0	0	193	195	24	24	2	4	0	0	1	4	0	0	27	32	220	227
충북	221	221	2	4	0	0	223	225	37	37	3	6	1	3	2	8	1	9	44	63	267	288
충남	268	268	1	2	0	0	269	270	48	48	5	10	1	3	2	8	0	0	56	69	325	339
전북	260	260	5	10	0	0	265	270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4	306
전남	214	214	0	0	0	0	214	214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36	244
경북	389	389	4	8	1	3	394	400	40	40	3	6	0	0	0	0	0	0	43	46	437	446
경남	452	452	7	14	0	0	459	466	35	35	3	6	0	0	0	0	0	0	38	41	4497	507
제주	136	136	0	0	0	0	136	136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2	15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건축사회	건축사	비 율	준회원
합 계	8,510	100%	13
서 울	2,296	33.9%	2
부 산	705	7.9%	8
대 구	662	7.7%	0
인 천	370	3.8%	0
광 주	283	3.7%	0
대 전	352	3.7%	0
울 산	220	2.6%	0
경 기	1,112	12.2%	3
강 원	227	2.6%	0
충 북	288	3.0%	0
충 남	339	3.1%	0
전 북	306	3.0%	0
전 남	244	1.9%	0
경 북	446	4.6%	0
경 남	507	5.0%	0
제 주	153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고
회원수	5,961	2,549	8,510	
비율	70.05%	29.95%	100%	
사무소수	5,854	2,017	7,871	
비율	74.37%	25.63%	100%	





